





| SRI-기획-2020-02 |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사업 발전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King Jeongjo's Royal Parade

최지연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백정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민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협력연구 백선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소은 (착한여행 비상임연구원)  
박미현 (THE관광연구소 연구원)

## 연구 자문위원

-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박재호 (서울등축제 총감독)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 소장)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장)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 2020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최병대
-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 인쇄** 2020년 11월 26일
- 발행** 2020년 11월 30일
- ISBN** 979-11-90343-74-9 (9330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20.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사업 발전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요약

2016년 이래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 용건릉까지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 구간 재현행사를 지자체간 협력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수원시는 1996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능행차 퍼레이드를 개최해왔었다.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형 재현 요구에 부응하여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구간 재현행사를 추진하였다. 지자체가 공동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 재현 축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난 4년간의 능행차 추진사항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행차 행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원형을묘정리의례의 기록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재현한 무형문화유산 복원의 성과이다. 고증을 통한 문화 콘텐츠化의 성공사례인 이 능행차는 서울 창덕궁에서 용릉까지 이어지는 59.2km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를 재현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능행차 공동재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개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축제이기도 하다.

지난 4년간 진행되어온 능행차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 참여자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능행차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였다. 쟁점이 되는 주된 이슈로는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제와의 관계, 개최시기, 개최주기, 원형 재현의 충실성과 시민 참여적 축제성 강화의 방향성, 지자체간 협력 증진 및 중앙정부의 참여 방안 등이다.

능행차 재현행사는 충실한 고증에 기반한 재현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도 고증의 해석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화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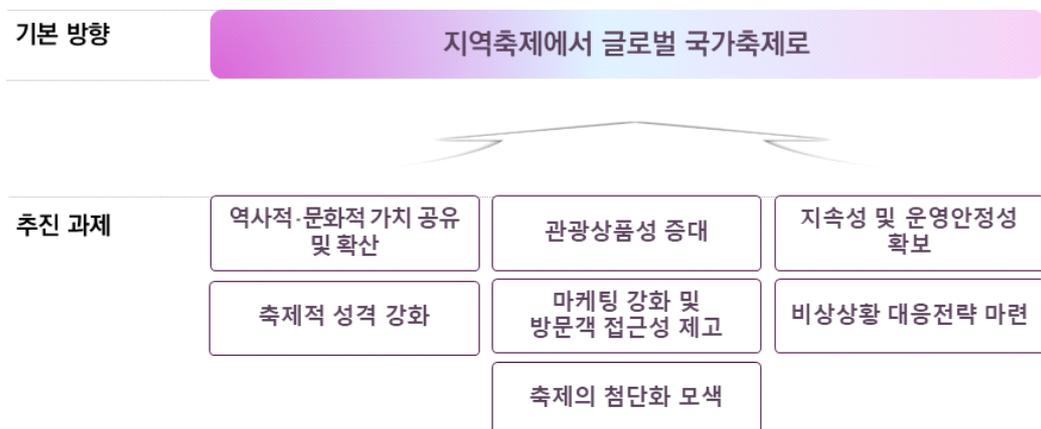
시민들의 경우 오랫동안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능행차를 독립하여 다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재현이라는 의미, 지자체간 협력 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능행차를 수원화성문화제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 수원시의 봄과 가을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능행차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나 시민들이나 개최주기는 연속성 및 각인효과 등이 중요하기에 매년 개최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우세하지만 예산이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 구간은 격년이나 3~4년제로 개최하더라도 수원시 구간은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수원시 구간 매년 개최를 원하는 입장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2018년 태풍, 2019년 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부구간 실시 혹은 행사취소로 인해 실질적인 전 구간 재현은 2016년 ~ 2017년 그것도 용건릉을 포함한 행차는 2017년에만 개최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및 위기상황에서의 행사개최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지침,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

한편 정조대왕 능행차의 지속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등의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더불어 행사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또한 행사 가치의 재해석 및 강조를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대한 지속적인 화제성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또 다른 유인책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의 기구 및 재단설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안처럼 각 지자체가 각각 추진한다면 중앙정부의 협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지역축제에서 글로벌 국가축제로' 발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바탕 위에 축제성과 상품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행사를 지속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 및 확산, 축제적 성격 강화, 관광상품성 증대, 마케팅 강화 및 방문객 접근성 제고, 축제의 첨단화 모색, 지속성 및 운영안정성 확보, 비상상황 대응전략 마련이라는 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발전방향



주제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글로벌문화축제, 대표관광상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b>제2장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추진 현황</b> .....	<b>5</b>
제1절 개최 현황 .....	7
1. 추진경과 .....	7
2. 연도별 추진현황 .....	8
제2절 현황 분석 .....	15
1. 모니터링 평가 .....	15
2. 언론보도 분석 .....	25
3. 빅데이터 분석 .....	36
<b>제3장 개선방안 의견조사</b> .....	<b>47</b>
제1절 시민 조사 .....	51
1. 관람객 설문조사 .....	51
2. 시민참여자 조사 .....	60
제2절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	63
1. 조사 개요 .....	63
2. 인터뷰 결과 .....	64
<b>제4장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사업 발전방안</b> .....	<b>67</b>
제1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발전방향 .....	69
1. 조사 및 의견 분석 .....	69
2. 발전 기본방향 .....	72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75
1.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 및 확산 .....	75
2. 축제적 성격 강화 .....	77
3. 관광상품성 증대 .....	78
4. 마케팅 강화 및 방문객 접근성 제고 .....	80
5. 축제의 첨단화 모색 .....	82
6. 지속성 및 운영안정성 확보 .....	84
7. 비상상황 대응전략 마련 .....	86

<b>참고문헌</b> .....	<b>89</b>
-------------------	-----------

**부록**

1. 시민조사 설문지 .....	91
2. 설문조사 통계표 .....	98

---

## 표 차례

---

〈표 2-1〉 연도별 개최현황 요약 .....	13
〈표 2-2〉 연도별 구성 프로그램 .....	14
〈표 2-3〉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 집계 및 추산인원 .....	17
〈표 2-4〉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 집계 및 추산인원 .....	21
〈표 2-5〉 유료 관람석 및 가격 변화 .....	24
〈표 2-6〉 2016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	25
〈표 2-7〉 2017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	27
〈표 2-8〉 2018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	29
〈표 2-9〉 2019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	31
〈표 2-10〉 연도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보도량이 많은 신문사 .....	34
〈표 2-11〉 정조대왕 능행차 기사 연도별 상위 5개 단어 .....	35
〈표 2-12〉 2017~2018년 방문객 수 비교 .....	37
〈표 2-13〉 2017~2018년 연령대별 방문객 수 비교 .....	38
〈표 2-14〉 2017, 18년 거주지별 시군구 단위 상위 20개 .....	39
〈표 2-15〉 2017~18년 축제 중 유입인구(상위) .....	40
〈표 2-16〉 2017~18년 축제 중 유입인구(하위) .....	40
〈표 2-17〉 2017~18년 동별 유동인구 비중 순위 .....	41
〈표 2-18〉 매체별 게시글 현황 .....	44
〈표 3-1〉 관람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	50
〈표 3-2〉 능행차 관람 연도 .....	50
〈표 3-3〉 조사 대상 .....	60
〈표 3-4〉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특성 .....	63

---

## 그림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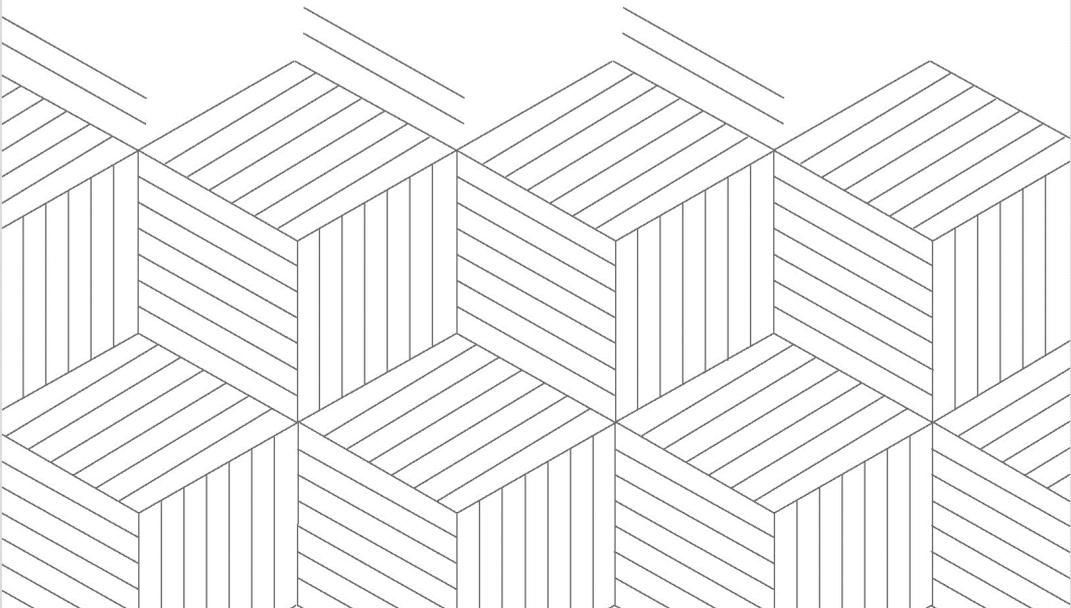
〈그림 2-1〉 행사 포스터 .....	9
〈그림 2-2〉 2016년 행렬구간 .....	9
〈그림 2-3〉 2017년 홍보 포스터 .....	10
〈그림 2-4〉 2017년 행렬구간 .....	11
〈그림 2-5〉 2018년 행사 포스터 .....	12
〈그림 2-6〉 2018년 행렬구간 .....	12
〈그림 2-7〉 2016~2019년 시기별 언론보도 현황 .....	33
〈그림 2-8〉 언론보도 헤드라인 주요 단어 .....	35
〈그림 2-9〉 유입인구별 방문객 수 .....	36
〈그림 2-10〉 기간에 따른 방문객 수 변화 .....	36
〈그림 2-11〉 시간대별 방문객 추이 .....	37
〈그림 2-12〉 시간대별 외국인 방문객 추이 .....	37
〈그림 2-13〉 연령대별 방문객 분포 .....	38
〈그림 2-14〉 연령대별 유입인구별 방문객 분포 .....	38
〈그림 2-15〉 성별, 연령별 방문객 분포 .....	38
〈그림 2-16〉 능행차 구간 동별 카드결제금액 분포(2017년 및 2018년) .....	42
〈그림 2-17〉 능행차 경로 지역에서의 업종 대분류별 결제금액 추이 .....	42
〈그림 2-18〉 연령대별(좌) 및 성별(우) 결제금액 추이 .....	43
〈그림 2-19〉 카드결제 유입지역 .....	43
〈그림 2-20〉 세부 프로그램별 게시글 수 .....	44
〈그림 2-21〉 검색 매체별 게시글 추이 .....	45
〈그림 2-22〉 2017년 주요 키워드 .....	45
〈그림 2-23〉 2018년 주요 키워드 .....	45
〈그림 3-1〉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횟수 .....	51
〈그림 3-2〉 능행차 관람 장소 .....	51
〈그림 3-3〉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경로 .....	52

〈그림 3-4〉 정조대왕 능행차 인지 경로 .....	52
〈그림 3-5〉 2016년 이전 능행차 관람여부 .....	53
〈그림 3-6〉 2016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 인지 여부 .....	53
〈그림 3-7〉 전 구간 재현과 수원시 구간 재현 선호도 .....	53
〈그림 3-8〉 수원시 구간 선호 이유 .....	54
〈그림 3-9〉 전 구간 재현 선호 이유 .....	54
〈그림 3-10〉 행사 주기 선호 .....	54
〈그림 3-11〉 매년 개최 선호 이유 .....	55
〈그림 3-12〉 격년제 및 3,4년제 개최 선호 이유 .....	55
〈그림 3-13〉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독립 여부 .....	55
〈그림 3-14〉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개최 선호 이유 .....	56
〈그림 3-15〉 개최시기 의견 .....	56
〈그림 3-16〉 가을(9~10월경) 개최 선호 이유 .....	57
〈그림 3-17〉 봄(3~4월경) 개최 선호 이유 .....	57
〈그림 3-18〉 공동재현의 의미 .....	57
〈그림 3-19〉 능행차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 .....	58
〈그림 3-20〉 강조 프로그램 .....	59
〈그림 3-21〉 관람 후 개선사항 .....	59
〈그림 4-1〉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SWOT 분석 .....	72
〈그림 4-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발전방향 .....	74
〈그림 4-3〉 정조대왕 능행차 교육자료집 .....	75
〈그림 4-4〉 정조대왕 능행 .....	77
〈그림 4-5〉 SNS를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	78
〈그림 4-6〉 한국관광공사 홍보동영상 사례 .....	79
〈그림 4-7〉 세대별 선호 SNS 현황 .....	81
〈그림 4-8〉 SNS 사전 이벤트 사례 .....	81
〈그림 4-9〉 축제 디자인 문화상품 사례 .....	82
〈그림 4-10〉 문화기술 활용사례 .....	83
〈그림 4-11〉 축제 앱 사례 .....	83
〈그림 4-12〉 QR코드 활용 사례 .....	84

〈그림 4-13〉 홀로그램 활용 사례 .....	84
〈그림 4-14〉 기후변화로 차질 빚은 지역축제 .....	86
〈그림 4-15〉 날씨로 인해 5년간 열리지 못하다 폐지된 영동군 빙벽장 .....	87
〈그림 4-16〉 게임 속 세상에서 진행된 결혼식 .....	88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6년 이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를 지자체간 협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하는 능행차 퍼레이드를 1996년부터 개최해왔음
  -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형 재현의 요구에 부응해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전 구간 행차를 재현하였고 2017년에는 화성시와도 협약하여 용건릉까지 확장해서 추진하였음
- 전 구간 재현 행렬의 정상적인 추진의 어려움 발생으로 인한 대안 모색 제기
  - 2018년의 태풍, 2019년 돼지열병으로 인해 일부 구간(서울)만 실시하고 경기도권 행사는 취소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 구간 재현은 2016~17년, 그것도 용건릉까지 포함한 행차는 2017년에만 개최된 실정임
  - 다수의 지자체와 협력하는 행사이나 한편으로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실시됨으로 인해 수원시가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능행차 행사가 수원화성문화제의 가장 비중이 큰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제의 정체성을 좌우하다 보니 문화제 또한 시대적 감각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불리한 상황임
- 그간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
  - 수원화성문화제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능행차 행사를 독립적인 행사로 추진함으로써 정조대왕 능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축제적 성격을 제고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서울연구원과의 협력연구로 지난 4년간 능행차 추진사항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행차 행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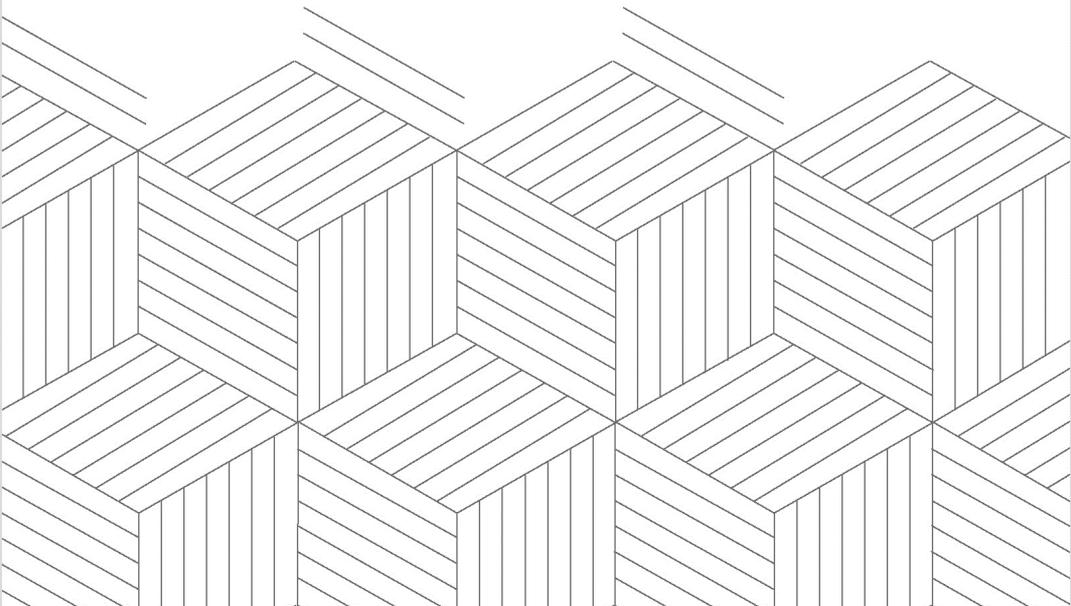
- 자료 분석
  - 2016~19년 재현 행사 관련 자료 검토 : 계획서,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 언론 자료 분석
  - 2018년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 심층 면담 및 자문회의
  - 행사 담당공무원 및 실무 관계자 : 추진 현황, 자체 평가의견, 개선점 제안 등
  - 관련 분야 전문가 : 행사 평가, 개선방안 제안 등
- 시민 대상 조사
  - 행사 참여자(행렬 참가자, 자원봉사자 등) : 참여 동기, 만족도 등
  - 행사 관람객 설문조사(온라인) : 행사 만족도 및 인지도 등

# 제2장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추진 현황

제1절 개최 현황

제2절 현황 분석





## 제2장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추진 현황

### 제1절 개최 현황

#### 1. 추진경과

- 수원화성문화제
  - 1964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확정되고 10월 15일 기공식 기념일을 ‘수원시민의 날’로 정하면서 ‘화흥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
  - 1970년대 들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복원되자 1973년부터 정조대왕 원행을 재현하고 화산릉 참배 : 능행도를 참조하여 화산릉 참배 행렬 시작
    - 1975년 제12회 화흥문화제에서 조선열성조능행반차도의 4개 주요장면을 수원 시내 4개 연합고교생 240명과 말 3필이 동원되어 재현
    - 1996년 참여인원 1,779명과 말 80필이 동원되어 대규모 인력이 참가하는 재현 퍼레이드로 크게 발전
  - 2000년 제37회부터 ‘수원화성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 추진
- 지역별 정조 을묘년 원행의 원형 재현
  - 수원시 : 1973년 능행차 행렬을 시작으로 1996년 대규모 인력이 참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가두 전통 퍼레이드 지속해 옴
  - 서울시 : ‘Hi-Seoul 2007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 프로그램을 대표 콘텐츠로 활용하여 단발행사로 진행
    - 창덕궁에서 노들섬까지 12Km 구간을 930명 행렬과 120필 말 동원하여 진행
  - 안양시 : ‘만안문화제’의 일환으로 ‘정조대왕 화산 능행차 시연’ 행사 실시
    - 안양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만안교’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200여 명의 수도군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양 시내를 도는 축소형 행사로 진행
  - 금천구 : 2012년 8월 31일, 2015년 10월 13일 ‘시흥행궁 행차’를 동일여상으로 실시

- 안산시 : 2010년부터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에서 정조가 기거했던 별궁이었던 안산행궁을 ‘안산객사’로 복원하고 재현한 ‘정조대왕 안산행궁 행차 재연’ 실시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 2003년 창덕궁에서 융릉에 이르는 전 과정 재현에 대한 여론 생성
  - 2007년 서울시의 ‘하이 서울 2007 페스티벌’에서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동 재현 논의 다시 제기
  - 2014년 서울시-수원시 시장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에 관한 논의 시작
  -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서울시와 금천구, 수원시는 2016년 수원화성 축성 220주년 및 2016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을 기념사업으로 확정하고 2015년 8월 26일 ‘서울-수원 공동 개최 안’을 계획

## 2. 연도별 추진현황

- 2016년 행사개요
  - 일시: 2016. 10. 8 (토) ~ 10. 9(일)
    - 서울구간(창덕궁~시흥행궁)은 2016. 10. 8(토) 10:00~18:00까지 진행되었고, 경기구간(시흥행궁~연무대)은 2016. 10. 9(일) 9:00~19:00까지 진행되었음
  - 행사구간은 창덕궁~시흥행궁터~화성행궁~연무대에 이르는 47.6km
    - 10.8(1일차) : 창덕궁-승례문-노들섬-노량행궁-시흥행궁(21.24km)
    - 10.9(2일차) :
      - 금천구청-안양역-의왕시청-지지대고개-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 (26.4km)
  - 규모는 인력 3,069명, 말 408필의 역대 최대의 행렬규모로 진행되었음
    - 서울 구간 인원 - 1,239명, 말 168필
    - 안양/의왕/수원 구간 인원 - 1,830명, 말 240필
  - 주최 : 서울시, 수원시, 금천구
  - 참여 지자체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안양시, 의왕시
  - 특이사항
    -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화성축성 22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재현함

〈그림 2-1〉 행사 포스터



자료 : 수원문화재단

〈그림 2-2〉 2016년 행렬구간



자료 : 수원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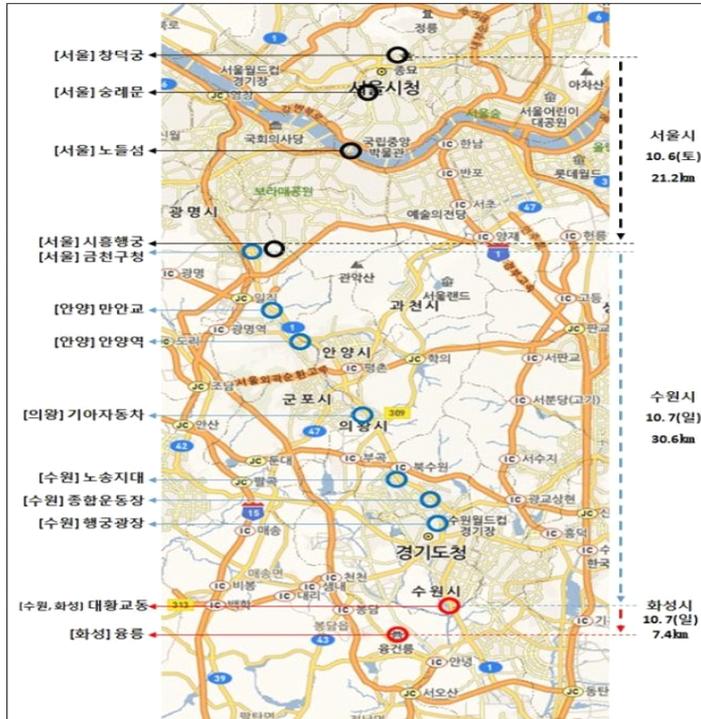
■ 2017년 행사 개요

- 행사일정 : 2017. 9. 23. (토) ~ 9. 24 (일)
- 행사구간 : 창덕궁~시흥행궁터~화성행궁~용릉(총59.2km)
  - 9.23(1일차) : 창덕궁-시흥행궁(21.24km)
  - 9.24(2일차) : 금천구청-연무대(26.4km), 화성행궁-용릉(11.6km)
- 주제 :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길 - 소통, 나눔, 공감
- 행렬규모 : 총 연인원 4,580명, 말 690필
  - 서울 구간 : 인원 1,100명, 말 140필
  - 안양/의왕/수원 구간 : 인원 3,180명, 말450필
  - 화성 구간 : 인원 480명, 말100필
- 주최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 참여지자체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 특이사항
  - 화성시가 새로이 참여하여 22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시(용릉)에 도착함

〈그림 2-3〉 2017년 홍보 포스터



〈그림 2-4〉 2017년 행렬구간



#### ■ 2018년 행사 개요

- 행사일정 : 2018. 10. 6. (토) ~ 10. 7 (일)
- 행사구간 : 창덕궁 출궁의식~강남구간~화성행궁~용릉(총48.85km)
  - 10.6(1일차) : 창덕궁 출궁의식-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10.85km)
  - 10.7(2일차) : 금천구청-연무대(26.4km), 화성행궁-용릉(11.6km)
- 주 제 :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길
- 행렬규모 : 총 연인원 4,234명, 말 644필
  - 서울 구간 인원 - 800명, 말 100필
  - 안양/의왕/수원 구간 인원 - 3,319명, 말 434필
  - 화성 구간 인원 - 500명, 말 70필
- 주 최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 참여지자체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 특이사항
  - 경기도가 참여하여 경기도 협약 및 타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 태풍과 우천으로 서울 구간은 창덕궁 출궁의식 및 강남구간만 재현함

〈그림 2-5〉 2018년 행사 포스터



자료 :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백서

〈그림 2-6〉 2018년 행렬구간



자료 : 5천명이 재현하는 '2018 정조대왕 능행차' 10월 6~7일 열린다(연합뉴스 2018.9.13.자)

■ 2019년 행사 개요

- 행사일정 : 2019. 10. 5. (토) ~ 10. 6 (일)
- 행사구간 : 창덕궁~한남대교북단~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총19km)
  - 10.6(1일차) : 창덕궁-한남대교북단(8km), 노들나루공원~시흥행궁(11km)
  - 10.7(2일차) : 수원 장안문 (900m)
- 주 제 : 인인화락(人人和樂), 여민동락(與民同樂)
- 행렬규모 : 총 연인원 1,420명, 말 140필
  - 서울 구간 인원 - 1,300명, 말 100필
  - 수원 구간 인원 - 120명
- 주 최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 참여지자체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특이사항
  - 태풍으로 인해 배다리 시도식 취소됨
  -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경기도 구간은 취소되었으며 수원 시내 구간 일부에서만 퍼레이드를 진행함

〈표 2-1〉 연도별 개최현황 요약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시	2016년 10월 8일(토) ~ 9일 (일) : 서울시와 수원시 2일간 릴레이 운영 - 서울/금천구간: 10.8(토)08:30~18:00 - 수원구간: 10.9(일)09:00~19:00	2017년 9월 23일(토) ~ 24일(일)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2일간 순차진행 - 서울구간: 9.23(토)08:30~18:00 - 수원구간: 9.24(일)08:50~18:40 - 화성구간: 9.24(일)11:00~16:00	2018년 10월 6일(토) ~ 7일(일)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2일간 순차진행 - 서울구간: 10.6(토)10:00~18:00 - 수원구간: 10.7(일)09:00~19:00 - 화성구간: 10.7(일)11:00~13:30	2019년 10월 5일(토) ~ 6일(일) - 서울구간: 10.5(토)10:00~18:00 - 수원구간: 10.6(일) 약식운영
행차 구간	서울~시흥행궁~안양/의왕~수원(총45km) - 서울/금천구간: 창덕궁~배다리~노들섬~시흥행궁(총21.2km) - 수원구간: 금천구청~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총23.8km)	서울~시흥행궁~안양/의왕~수원~화성(총59.2km) - 서울구간: 창덕궁~배다리~노들섬~시흥행궁(총21.2km) - 수원구간: 금천구청~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총26.4km)/ 화성행궁~대왕교통(총5.9km) - 화성구간: 대왕교통~용릉(총7.4km)	서울~시흥행궁~안양/의왕~수원~화성(총59.2km) - 서울구간: 창덕궁~배다리~노들섬~시흥행궁(총21.2km) - 수원구간: 금천구청~수원종합운동장~연무대(총26.4km)/ 화성행궁~대왕교통(총 5.9km) - 화성구간: 대왕교통~현충공원~용릉(총7.4km)	서울~시흥행궁/장안문(총 19.8km) - 서울구간:창덕궁~한강대교북단/노들섬~시흥행궁(총18.9km) - 수원구간:장안문~화성행궁(총0.9km)
주제	소통, 나눔, 공감	여민동락의길-소통,나눔,공감	여민동락의 길	인인화락 여민동락
행차 규모	총 참여인원 3,103명, 말 408필 - 서울/금천구간: 참여인원1,239명 / 말168필 - 수원구간: 참여인원1,860명 / 말240	참여인원 4,391명 - 서울구간: 참여인원 1,100명 / 말 140필 - 수원구간: 참여인원 2,810명 / 말480필 - 화성구간: 참여인원 481여명 / 말70필	참여인원 4,410명 - 서울구간: 참여인원 1,100명 / 말 140필 - 수원구간: 참여인원 2,810명 / 말 480필 - 화성구간: 참여인원 481여명 / 말 70필	참여인원 1,420명 - 서울구간: 참여인원 1,300명 / 말 140필 - 수원구간: 참여인원 120명
주최	- 서울시, 수원시, 금천구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
참여 지자체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안양시, 의왕시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특이 사항		- 화성시가 새로이 참여 - 22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창덕궁)~화성시(용릉)에 도착	- 경기도 협약 및 타지자체의 협약 체결 - 태풍과 우천으로 서울구간은 창덕궁 출궁의식 및 강남구간만 재현	- 태풍으로 배다리 시도식이 취소됨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경기도 구간은 취소됨

〈표 2-2〉 연도별 구성 프로그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북 퍼포먼스†</b>	<b>전통무용공연·경찰의장대</b>	<b>조선의마술사·경찰의장대</b>	정조대왕 특별행사 ‘거동’
장용영 수위 의식	정조대왕 수원 입성 환영식	정조대왕 수원 입성 환영식	연합풍물단 공연
대형깃발 기점놀이	연합풍물단 공연	연합풍물단 공연	조선백성 환희마당
파발마	군문의식	<b>조선백성 환희마당</b>	대동난장 및 공연 등
조선백성 플래시몹‡	<b>복공연</b>	군문의식	
황금갓옷 착용식	조선백성 플래시몹	<b>대북퍼포먼스</b>	
수원유수 정조맞이	수원유수 정조맞이	수원유수 정조맞이	
격쟁	대동놀이·기점놀이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마살아츠 공연	자객대적공방전	무예 브랜드 공연 「야조」	
대동놀이	무예 브랜드 공연 「야조」	출궁의식	
효(孝)문화체험	출궁의식	표식기 교대의식	
왕에게 바란다(백성 상언 게시판)	표식기 교대의식		
용승천 퍼포먼스(특별행사)			

† (볼드체) 명칭 변경 프로그램

‡ (이탤릭체) 지속 프로그램

## 제2절 현황 분석

### 1. 모니터링 평가

#### ■ 분석개요

- 백서 및 종합평가 보고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연도별 현황을 분석함<sup>1)</sup>
- 활용 자료
  - 2016년 :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백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백서, 방문객 만족도 조사보고서
  - 2017년 : 2017 백서 '수원시민 역사 머금은 문화의 문을 열다', 종합평가 보고회 자료,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2018년 : 2018 백서 '역사를 만나다 미래를 품다', 종합평가 보고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2019년 : 2019 백서 '역사를 빚어낸 수원의 길 세계로 펼쳐간다',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1) 2016년<sup>2)</sup>

#### ■ 방문객 수 및 구성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약 21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정함
  - 수원화성문화제 총 방문객은 521,364명으로 추정하는데 주말인 토요일(8일)과 일요일(9일)은 같은 수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가정하고 토요일만 집계하였음 토요일의 집계 수는 213,066명임
  - 정조대왕 능행차의 수원 구간은 수원화성문화제 일요일 프로그램의 메인행사이므로 토요일 집계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 방문객 표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의 구성은 수원시민이 60.8%, 외부방문객이 39.2%로 추정할 수 있음
  - 외부방문객의 70%는 경기도 거주자로 추정하고 있음
  - 수원시민의 경우 40대가 24.4%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데 반해 외래방문객은 20대가 27.2%로 가장 빈도가 높음

1) 각 자료들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 일부로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였기 때문에 능행차만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 분석의 제한이 있음

2) 조사대상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만이 아닌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6년도 수원화성문화제는 개최일수를 3일로 축소했음에도 전년도 대비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는데 주요한 이유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들고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은 수원시민과 외래방문객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축제에 참여한 수원시민은 4회 이상의 유경험자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축제 체류시간은 2~4시간이고 축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홍보물을 통해 얻고 있음
  - 외래방문객의 경우는 조사자의 2/3가 처음 방문한 것이었으며 축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었고 체류시간은 4~6시간이 가장 많았음
  - 수원시민과 외래방문객 모두 동반자는 가족이 가장 많았음
- 경제효과
  -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은 평균 40,124원인데 지역주민은 36,933원이고 외래방문객은 60,289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중 가장 비중이 큰 비용은 식음료비로 지역주민은 14,915원, 외래방문객은 23,629원을 지출하였음
    -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항목은 쇼핑비인데 지역주민은 10,270원, 외래방문객은 8,442원으로 지역주민이 외래방문객보다 금액이 많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경제효과로 240억 2천 4백만 원으로 추정
    - 수원시민에 의해서는 117억 1천 4백만 원, 외래 관광객에 의해서는 123억 1천만 원임
- 만족도 평가
  - 2016년도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는 5.20점(7점 기준)으로 전년도인 5.04점에 비해 높아짐
    - 만족도는 재미,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안내 및 해설, 지역문화 인식, 시설 안전, 접근성 및 주차장, 재방문 유도라는 10가지 문화관광축제 공통항목으로 조사함
    - 만족도 평가 항목 중 축제 관련 프로그램 항목이 5.64점으로 가장 높고, 축제 관련 살거리 항목이 4.32점으로 가장 낮음
-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
  - 대표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에서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축제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 냈고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해석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의 제공,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공감대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봄

## 2) 2017년

### ■ 의의

- 1795년 을묘원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화성시 용릉까지 59.2km를 전 구간 재현 함
-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9개 지자체 연합 대규모 축제로 문화 관광상품으로 부상함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대열에 어린이 체험단, 글로벌 체험단, 시민체험단을 구성하고, 사회공헌 공동퍼레이드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였음

### ■ 만족도 및 방문객 수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람을 위한 방문객수는 107,200명으로 집계되었음
  - 관람객 중 수원시민 61,426명(57.3%), 외래방문객 45,774명(42.7%)으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수원 종로교회 앞이 15,3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5시 사이가 15,558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3〉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 집계 및 추산인원

(단위 : 명)

구분	씨티은행앞	미술관 옆 삼거리	복수동 성당	수원종로 교회	여민각	수원천 매향교 (화홍문 방향)	수원천 매향교 (동대문 방향)	팔달구청앞	계
10:01~11:00	675	783	936	1,037	813	762	711	803	<b>6,520</b>
11:01~12:00	810	832	977	1,234	1,034	984	1,034	1,009	<b>7,914</b>
12:01~13:00	1,140	1,093	1,220	1,394	1,125	968	1,196	1,390	<b>9,526</b>
13:01~14:00	1,497	1,338	1,534	1,667	1,497	1,725	1,565	1,621	<b>12,444</b>
14:01~15:00	1,831	1,664	1,932	1,959	1,734	2,142	1,679	1,727	<b>14,668</b>
15:01~16:00	1,992	1,871	1,911	2,223	1,892	1,553	1,730	1,919	<b>15,091</b>
16:01~17:00	2,131	1,973	2,039	2,076	1,976	1,725	1,807	1,831	<b>15,558</b>
17:01~18:00	1,661	1,736	1,807	1,963	1,787	1,816	1,613	1,760	<b>14,143</b>
18:01~19:00	1,363	1,439	1,669	1,774	1,330	1,442	1,236	1,083	<b>11,336</b>
<b>계</b>	<b>13,100</b>	<b>12,729</b>	<b>14,025</b>	<b>15,327</b>	<b>13,188</b>	<b>13,117</b>	<b>12,571</b>	<b>13,143</b>	<b>107,200</b>

자료 : 수원문화재단(2017),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p.28

- 방문객의 구성이나 특징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경제효과

-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은 평균 37,815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주민의 1인당 지출액은 36,933원에서 30,324원으로 17.9%가 줄었고, 외래방문객은 60,289원에서 46,605원으로 22.7%가 줄어서 외래방문객의 지출비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경제효과는 281억 4천 6백만 원으로 추정
  - 방문객의 1인당 지출비용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나 전체 방문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경제효과는 크게 나타남
- 2017년도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는 5.22점(7점 기준)으로 전년도의 5.20점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임
  - 만족도 평가 항목 중 축제의 재미 항목이 5.67점으로 가장 높고, 축제의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이 4.23점으로 가장 낮음
  - 전년도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았던 축제 관련 프로그램은 5.59점으로 지난해의 5.64점보다 낮아짐

■ 종합 평가

- 222년 만에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 용릉까지 전 구간을 원형을묘정리의궤의 반차도에 따라 고증하여 완벽 재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서울시, 화성시, 수원시의 공동재현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낼 만큼의 이슈성을 불러일으키고 능행차에 대한 관심을 광범위하게 모아내는데 성공했음
  -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홍보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여러 도시의 시민들이 즐겼다는 점에서 지역문화관광축제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한편으로 각 지자체별로 참가의지가 다르고 사업경험의 차이가 있어 준비한 내용의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 홍보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 홍보 사이트 운영방식이 일원화되지 않고 검색 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된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큰 장점으로 보고 이를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수원화성문화제가 시민주도형 축제를 지향하면서 정조대왕 능행차 또한 시민참여가 결합된 축제형 퍼레이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보니 문화제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균형과 비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행차라는 특성상 장시간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 행사이다 보니 도로와 교통통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빠지지 않음
  - 거기다 동물이 동원되는 행사이기에 돌발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동물보호의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적됨
- 행차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능행차 행렬이 고증과 재현에 초점을 맞추므로 해서 발생하는 행렬의 단조로움이 있으므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변화를 주기를 제안함
  - 구간별로 능행차 행렬의 도착시간이 다르므로 행렬을 기다리는 동안 부대행사가 필요함
  - 행렬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행렬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행렬 간 간격을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면서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어줄 프로그램 구성이 있어야 할 것임
  - 화성행궁에서 대황교동까지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소규모 행차로 형식적인 재현이었다고 느껴지므로 중간 중간 간단한 의례나 퍼포먼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복식이나 세습일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고증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음
- 관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완성도, 참여방식의 원활함과 새로움, 접근성과 편리함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3) 2018년

#### ■ 의의

- 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자체 연합축제의 면모를 갖추
  - 화성시, 서울시,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협약에 참여하게 됨
  - 행렬이 지나가는 지자체인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와도 협약을 이끌어냄

- 수원시와 화성시가 MOU를 체결하여 시범적으로 TF팀을 발족하고 공동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함
- 육군과 공군 본부 승인을 통하여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2018년 축제성 행사 중 유일한 군 병력 참여 축제를 만들
- 능행차 행렬 뒤를 이은 퍼레이드 및 일반시민의 행렬이 본 행렬만큼이나 길어 역사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보여줌
- 세계관광기구(UNWTO), 한국관광학회, 국제관광인포럼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2018한국관광혁신대상’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음
- 만족도 및 방문객 수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람을 위한 방문객 수는 33,192명으로 집계되었음<sup>3)</sup>
    - 관람객중 수원시민은 18,521명(55.8%), 외래방문객은 14,671명(45.2%)로 집계되었음
    - 구간별로는 수원 종로교회 앞이 4,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5시 사이가 5,220명으로 가장 많았음
- 직접경제효과
  -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의 소비지출 분석 결과 외래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지역주민보다 많음
    - 1인당 각 분야별 평균 지출 비용은 지역주민 18,912원, 외래방문객 32,460원으로 조사되었음
    - 항목별로는 식음료비가 지출이 수원시민 9,914원(52.4%), 외래방문객 11,600원(35.7%)으로 가장 비중이 높음
    -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17년에 비해 지역주민은 30,324원에서 18,912원으로 37.6%, 외래방문객은 46,605원에서 32,460원으로 30.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직접경제효과는 44억 1천 5백만 원으로 추정
    - 전체 방문객 수와 방문객의 1인당 지출비용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효과는 2017년도의 281억 원에 비해 크게 감소함
    - 태풍 콩레이로 인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 1,2일차에는 방문객이 매우 감소했음

3) 2017년 방문객 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와 달리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과 수원화성문화제 일요일 방문객을 구분하지 않고 일요일 방문객을 전부 정조대왕 능행차 방문객으로 집계했음. 수원화성문화제 일요일 방문객 수는 83,231명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방문객 수와 합하면 총 117,423명임

〈표 2-4〉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 집계 및 추산인원

(단위 : 명)

구분	씨티은행앞	미술관 옆 삼거리	복수동 성당	수원종로 교회	여민각	수원천 매향교 (화홍문 방향)	수원천 매향교 (통달구청방향)	팔달구청앞	계
10:01~ 11:00	196	234	287	322	244	226	208	241	1,958
11:01~ 12:00	243	251	301	391	321	304	321	313	2,445
12:01~ 13:00	359	342	387	447	353	298	378	446	3,010
13:01~ 14:00	483	428	496	543	483	563	507	527	4,030
14:01~ 15:00	600	542	636	655	566	709	547	524	4,779
15:01~ 16:00	657	605	628	738	622	503	565	631	4,949
16:01~ 17:00	705	650	673	686	651	663	592	600	5,220
17:01~ 18:00	541	567	592	647	585	625	524	536	4,617
18:01~ 19:00	237	263	344	380	325	264	192	179	2,184
<b>계</b>	<b>4,021</b>	<b>3,882</b>	<b>4,344</b>	<b>4,809</b>	<b>4,150</b>	<b>4,155</b>	<b>3,834</b>	<b>3,997</b>	<b>33,192</b>

자료 : 수원문화재단(2018),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2018), p.38

- 2017년도 수원화성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는 5.32점(7점 기준)으로 전년도의 5.22점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만족도 평가 항목 중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5.7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축제의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이 4.3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축제의 접근성 및 주차장 항목은 전년도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낮았던 항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족도에서 수원시민은 5.36점, 외래방문객은 5.28점으로 외래방문객보다 수원시민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 평가
  - 태풍의 영향에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잘 진행되어 역사적 중요성과 이슈성 및 1년에 한번 볼 수 있다는 점으로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됨
  - 능행차 규모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퍼레이드가 확대되는 길을 열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시민들을 프로그램 참여주체로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함
  - 능행차의 시민참여단을 600명까지 확대시키고 행렬의 일부 구간을 ‘니동내동 퍼레이드’, ‘화성어차 효행행렬’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로 구성하였음
- 능행차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음
  - 정조대왕 능행차가 등장하는 시간까지 관람객들이 볼거리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의 출발시간 계획에 맞추어 지연 없이 진행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가 반감되지 않게 해야 함
  - 대표 명소 앞에서만 격렬하게 진행되는 퍼레이드라 방문객들은 어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지 격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노송지대-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연무대의 주요 행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및 퍼포먼스가 필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 퍼포먼스가 주요 포인트에서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구간의 관객들은 매우 긴 시간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구간의 균형적 활용이 필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 퍼레이드 행렬 동선의 효율화 및 다양한 퍼포먼스로 연속성 있는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함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시 시간별 도착예정 및 통과 시간 등을 행렬 구간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함
  - 정확한 능행차 통과시간 공지와 더불어 주변 골목 볼거리 정보 제공, 주변 동선 안내 등을 안내해 주변 수원탐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음
- 안전요원들이 적극 활동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준비를 잘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되며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행렬의 동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통제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본 행렬 뒤에 이어지는 시민퍼레이드와의 간격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로 위로 관객들이 나오게 되어 행렬과 관객들이 뒤엉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장안문 계단이나 성벽 쪽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위치에서 관람하는 부분이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음

- 긴 구간 말과 사람과 수레가 함께 행차하는 것인 만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 해야 할 것 같음
- 정조대왕 능행차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고 이슈가 되지만 여전히 홍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음
-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에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정기적인 홍보를 통해 외부관광객 유치의 방법을 찾아내야함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했으나 지역방송 혹은 지방일간지, 인터넷 신문사가 대부분이라 효과는 미비하다고 느껴짐
- 정조대왕 능행차 홈페이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에 실시간 알림이나 현장상황 공지 부분에 약함
- 각종 SNS와 문자,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 변경 공지 및 현황 공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20~30대를 타깃으로 한 인터넷 기반 홍보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홍보의 방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외래방문객의 대다수는 수원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므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유료좌석 판매는 축제의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음
- 유료 관람석들도 인기 있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장안문부터 화성행궁 광장 앞까지 도로 한쪽 혹은 양쪽으로 유료 관람석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음
- 정조대왕 능행차가 점점 커지면서 수원화성문화제의 관계설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 외의 수원화성문화제 프로그램을 인지 못하고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화성문화제와 동일시되거나 더 부각되고 있음
- 수원화성문화제의 역사에 비하면 대외적 인지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가 더불어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됨

#### 4) 2019년

##### ■ 축소 운영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구간은 전면 취소했으나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시 구간에서만 시민참여 거리 퍼레이드를 운영함
-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가 군졸과 궁녀의 호위를 받으며 행차하는 거동(學動)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함

■ 의의 및 성과

- 전년도에 능행차는 고중에 입각한 원형의 재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19년도에는 고증재현을 기반으로 관람객과 출연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하였음
  - 퍼레이드 구간 중간 중간에 저장거리와 조선시대 배역의 재현배우들의 에피소드 공연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능행차 도착 전까지 소소한 즐길 거리 제공
  - 본 행렬 후미에 축제로서의 각종 오브제 퍼레이드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 타 기관들과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참여도 확대시켰음
  - 지상작전사령부(육군), 제10전투비행단(공군), 미군 제 6-52방공포대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군 병력 최대 인력인 1,350명 지원을 확보했음
  - 경기도의 지원을 2018년 5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4억 4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음
- 행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외국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음
  - 행렬 체험단 참여대상을 어린이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면서 유료화를 시도하였음
  - 여행사와 연계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시도하여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관광객 265명을 모객하였음
- 유료 좌석 및 유료 프로그램 판매를 확대하여 유료화의 강화에도 성공함
  - 유료 관람석의 1,704석 중 90%가 넘는 1,540석을 판매함으로써 유료 좌석 확대 및 가격 상향에도 성공적인 판매현황을 보임
  - 가족체험단 프로그램 판매 또한 성공하여 200명 모집이 매진되었음(가격 5,000원)
  - 관람석 운영은 발권부터 안전관리까지 전문대행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관람석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였음

〈표 2-5〉 유료 관람석 및 가격 변화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관람석 수	828석(총 1,278석)	1,704석(1,880석)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8석 10,000원</li> <li>· 300석 5,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4석 20,000원</li> <li>· 300석 15,000원</li> <li>· 1,140석 10,000원</li> </ul>	

- 2018년 능행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마케팅을 차별화하였음

- 기존 행렬의 단순 이동 지역을 나타내는 ‘구간’ 명칭 대신 전통적인 국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경기도 구간은 ‘행행(行幸)’으로 변경
- 9월 중순부터 외래유입 인구가 많은 수원 신도심지역인 권선구 어울림공원, 영통구 광고호수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능행차’ 홍보 전개

## 2. 언론보도 분석

### ■ 분석 개요

-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기사를 네이버 뉴스 검색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정조’와 ‘능행차’를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고 언론사, 보도 날짜, 기사 제목, 기사 URL을 수집하여 목록화함
- 각 기사 제목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아 연도별, 시기별 빈도 분석 및 내용 분석에 활용함

### 1) 2016년

#### ■ 일간지 보도 현황

- 2016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언론보도는 총 503건이 보도되었음
- 중앙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sup>4)</sup>)는 총 23건임
- 기타 일간지(온라인 신문사 포함)는 480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는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순의 빈도로 나타났음

〈표 2-6〉 2016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구분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계
중앙일간지	17건	3건	3건	23건
기타일간지	231건	211건	38건	480건

4) 순서는 창간일자 순임

○ 중앙일간지 보도

- 행사 전 보도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행사 한 달 전 보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음
- 내용은 전 구간 재현 관련보도가 가장 많았고, 참여자 모집에 대한 보도도 있었음
- 행사 중 보도는 전 구간 재현 관련보도였으며, 행사 후에는 수원시장 관련 1건, 서울(배다리)관련 1건, 사설 1건으로 나타났음

○ 기타 일간지 보도 현황

- 온라인 신문사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함
- 능행차 행사 전 보도는 행사 한 달 전이 13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행사 전 보도에서는 수원시 관련보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공동재현 관련 및 수원문화재단과 체험단 모집관련이 높은 빈도를 보였음.
- 행사 중에는 211건, 행사 후에는 38건으로 보도되었음
  - 행사 중 보도에서는 서울시 구간 관련 보도가 101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됨
  - 수원시 구간 관련보도가 86건으로 서울시 구간 관련 보도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보여 졌음
  - 221년, 완벽재현, 전 구간, 공동재현 관련보도가 34건으로 나타났음
  - 창덕궁~화성행궁 관련 보도 14건, 말(馬) 관련 보도 13건, 배다리 관련 7건, 교통(통제) 관련 4건으로 나타났음
- 행사 후 보도에는 수원시 관련 보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벽재현 관련 보도 9건, 수원화성문화제 및 평가회 관련 보도가 7건으로 나타났음

○ 일간지 보도 종합

- 행사 전에는 행사개최 관련 홍보 및 모집에 관한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함
- 행사 중에는 단순 사진보도 기사 및 교통통제 등이 주로 보도되고 있음
- 행사 후에는 언론보도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며, 행사 종료 한 달이 지나면 더 이상 관련 기사가 보도 되지 않음

■ 언론사별 기사 보도 현황

-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는 ‘연합뉴스’ 67건, ‘뉴시스’ 42건, ‘뉴스1’ 39건, ‘국제뉴스’ 39건, ‘아주경제’ 15건 순으로 나타났음

■ 헤드라인 주요 단어 분석

- 1위는 ‘정조대왕(정조)’이 493회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고, 2위는 403회의 ‘능행차’였으며, 3위는 ‘수원’ 242회, 4위는 ‘재현’ 227회, 5위는 ‘서울’ 67회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화성’은 66회 노출되었고, ‘공동(공동재현)’은 65회로 나타났음

- 2016년에는 2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정조대왕 능행차가 재현한다는 점과 서울시와 수원시가 함께 진행한다는 자체로 많은 주목을 받아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 주요단어를 분석한 순위에는 없으나 부정적인 기사 및 단어들은 ‘교통통제’, ‘말’에 관련된 ‘낙마’사고 등이 있었음

## 2) 2017년

### ■ 일간지 보도 현황

-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언론보도는 총 503건이 보도되었음
  - 중앙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는 총 17건
  - 기타 일간지(온라인 신문사 포함)는 486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는 행사 중, 행사 전, 행사 후 순의 빈도로 나타났음

〈표 2-7〉 2017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구분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계
중앙일간지	11건	4건	2건	17건
기타일간지	207건	247건	32건	486건

- 중앙일간지 보도 현황
  - 행사 전 보도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능행차 행사 한 달 전 보도가 7건으로 가장 많았음
    - 내용은 전 구간 재현 관련 보도가 5건으로 나타났음
  - 능행차 행사 중에는 교통통제, 수어통역, 완벽재현 보도 중심이었음
  - 능행차 행사 후에는 완벽재현 보도 중심이었음
- 기타 일간지 보도 현황
  - 온라인 신문사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함
  - 2016년에는 행사 전 보도가 많았던 반면 2017년에는 행사 중 보도가 미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능행차 행사 전 보도된 207건 중 행사 한 달 전 보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음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중 주요 보도 내용으로는 최초재현, 첫 재현, 전 구간, 완벽재현, 최대 규모, 222년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보도 됨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중 수원시 관련 33건, 수원문화재단(체험단모집, 특별관람석) 등이 23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중 서울시-수원시-화성시 관련 보도가 19건, 교통통제 관련 10건, 협약체결 관련 9건으로 나타났음
- 능행차 행사 중 보도된 기사는 서울시 구간 관련 120건, 수원시 구간 관련 127건으로 2016년보다는 미세하게 수원시 보도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능행차 행사 중 보도로 교통 통제 관련 16건, 수원화성문화제 관련 8건이 보도되었음
- 능행차 행사 후 보도는 염태영 수원시장 및 문화예술상품 관련 보도, 전 구간, 완벽재현 관련 보도가 많이 보도되었음
- 일간지 보도 현황
  - 능행차 행사 전 보도는 체험단 모집 및 서울 창덕궁에서 용건릉까지 재현 추진에 대한 홍보가 대다수를 차지함
  - 2016년의 보도와 다른 부분은 특별관람석 설치 및 화성시가 참여하여 용건릉까지 확장하여 재현을 추진한다는 점이 있음
  - 능행차 행사 중 보도는 단순 사진보도 기사 및 교통관련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 능행차 행사 후에는 9월 25일인 다음 날 기사가 대부분이며, 그 후로는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
  - 2016년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난 뒤 행사 평가 및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 단순 홍보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역사적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기사가 부재함
- 언론사별 기사 보도 현황
  -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는 ‘연합뉴스’ 59건, ‘뉴스1’ 57건, ‘뉴시스’ 44건, ‘국제뉴스’ 19건, ‘경인일보’ 6건 순으로 나타났음
- 헤드라인 주요 단어 분석
  - 1위는 ‘정조(정조대왕)’가 495회로 가장 높은 빈도로 노출되었고, 2위는 ‘능행차’ 450회였으며, 3위는 ‘재현’ 239회, 4위는 ‘수원(수원시)’ 152회, 5위는 ‘화성(화성시)’ 102회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완벽’이 82회 노출됨으로 보았을 때, 처음으로 서울 창덕궁~용릉을 재현한 것에 대한 홍보로 많이 쓰여 졌음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으로 ‘222년’은 68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음

- ‘서울(서울시)’이 70회 나타났는데, 2016년 주요단어 5위인 것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 변화가 있었음
- ‘창덕궁’과 ‘용릉(용건릉)’은 각각 46회, 31회 언급되었음
- 주요단어 분석의 상단 순위에는 없으나,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교통통제’, ‘혼잡’ 등의 부정적인 기사 및 단어들 이 있었음

### 3) 2018년

#### ■ 일간지 보도 현황

-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언론보도는 총 328건이 보도되었음
  - 중앙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는 총 10건
  - 기타 일간지(온라인 신문사 포함)는 318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는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순의 빈도로 나타났음

〈표 2-8〉 2018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구분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계
중앙일간지	6건	3건	1건	10건
기타일간지	178건	123건	17건	318건

- 중앙일간지
  - 행사 전 보도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행사 한달 전 보도가 3건으로 많았음
    -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재현, 최대 규모 관련보도가 많았고, 관광혁신대상, 시민체험단 등도 보도되었음
  - 행사 중 보도를 살펴보면 행사 취소관련 보도가 2건으로, 태풍으로 인한 서울구간 보도로 보여짐
  - 행사 후 관련보도는 행사 관련 종합보도가 1건 있었음
  - 2016년, 2017년에 비해 중앙일간지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기타 일간지
  - 온라인 신문사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100건 이상 넘게 줄어들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178건 중 행사 한 달 전보도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음
  - 능행차 행사 전 보도는 체험단 모집관련 기사가 가장 32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음
  - 이외에도 한국관광혁신대상 및 업무협약 체결관련 보도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음
- 능행차 행사 중 보도는 123건, 행사 후에는 17건으로 나타남
  - 행사 중 보도에는 수원시 관련보도가 71건, 서울시 관련보도가 52건으로 수원시 관련 보도가 더 많았음
  - 태풍 및 취소 관련 보도가 23건인 것으로 보아 서울시 관련보도가 적은 것은 서울시 구간에 취소 및 변동사항이 있음으로 여겨짐
- 행사 후 보도에는 행사 관련 사진보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종합평가회 관련 보도도 높은 빈도를 보였음
- 2018년 행사 후 보도 중 비판 보도가 2건 있는 것이 특이사항임
  - 비판 보도 내용으로는 행사 미숙 및 고증 부족, 세금낭비 등의 의견이 있음
- 일간지 보도 종합
  - 능행차 행사 전 기사는 체험단 모집관련 및 한국관광혁신대상 수상, 공동재현 관련 순으로 많이 보도되었음
  - 능행차 행사 중 기사는 태풍 및 취소관련 기사가 많음
    - 서울시가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구간이 축소 및 취소된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능행차 행사 후 기사는 행사 관련 기사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 행사 후 관련기사 보도가 없으나 종합평가회 개최로 일부 기사를 찾아볼 수 있음
- 언론사별 기사 보도 현황
  -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는 ‘연합뉴스’ 51건, ‘뉴스1’ 36건, ‘뉴스스’ 20건, ‘매일일보’ 9건, ‘아시아뉴스통신’ 8건 순으로 나타났음
- 헤드라인 주요 단어 분석
  - 1위는 ‘정조(정조대왕)’가 가장 높은 빈도인 306회 언급되었고, 2위는 능행차 269회, 3위는 재현 140회, 4위는 수원(수원시) 112회, 5위는 화성(화성시) 76회로 나타났음
  - 2017년과 횡수만 차이가 있을 뿐 순위는 동일함
  - 이외에도 ‘공동’이 68회, ‘서울(서울시)’이 59회 언급되었음

- 태풍으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진행하여 ‘태풍’이 26회, 태풍의 이름인 ‘콩레이’는 21회, 이와 관련된 ‘취소’가 19회 언급되었음
- 2016년, 2017년에도 나타났듯 공통적으로 ‘교통통제’가 12회 언급되었음

#### 4) 2019년

##### ■ 일간지 보도 현황

-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언론보도는 총 255건이 보도되었음
- 중앙일간지(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는 총 12건
- 기타 일간지(온라인 신문사 포함)는 243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사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는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순의 빈도로 나타났음
  -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경기도구간이 취소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2-9〉 2019년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

구분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계
중앙일간지	12건	0건	0건	12건
기타일간지	195건	44건	4건	243건

- 중앙일간지 보도 현황
  - 행사 전 보도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능행차 행사 한 달 전 보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음
    - 내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경기도구간 취소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음
  - 행사 중 및 행사 후 보도는 없었음
  - 2016년~2018년까지는 행사 중 혹은 행사 후 보도가 있었던 반면 2019년에는 1건도 보도되지 않은 것이 특이사항임
- 기타 일간지 보도 현황
  - 온라인 신문사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함
  - 2018년에 비해 행사 전 보도의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행사 중 보도와 행사 후 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음
    - 행사 중, 행사 후 보도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구간 행사 취소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195건 중 한 달 전 보도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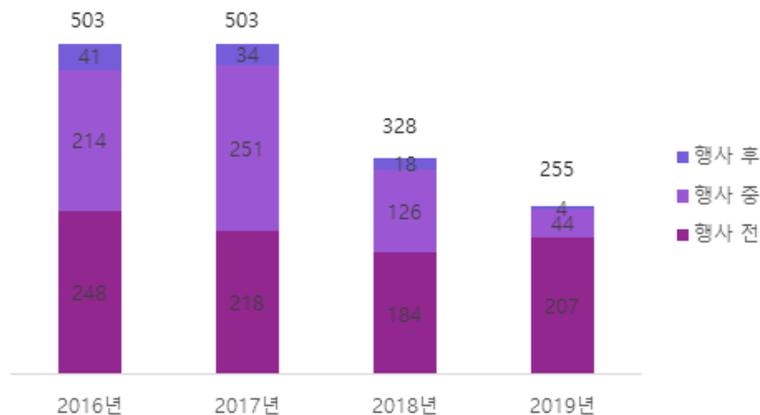
- 능행차 행사 전 보도 중 주요 보도 내용으로는 시민참여단, 가족참여단, 행렬시민 모집관련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음
- 수원시 및 수원화성문화제 관련이 40건, 행사 취소관련이 40건 보도되었음
- 이외에도 2019년은 군포시 참여 관련 보도가 17건 있었음
- 능행차 행사 중 보도는 44건 중 행사 및 행렬 사진 보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음
  - 태풍 및 돼지열병 관련 취소 보도는 5건 있었음
- 능행차 행사 후 보도는 4건으로 모두 행사 및 행렬관련 사진보도였음
- 일간지 보도 종합
  - 2016년~2018년에 비해 보도가 많이 되지 않음
    - 태풍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 혹은 취소된 영향이 있음
  - 수원의 경우 특별관람석을 설치하여 관련기사가 많았음
  - 단순 홍보 및 사진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함
- 언론사별 기사보도 현황
  -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는 ‘뉴스1’ 59건, ‘연합뉴스’ 57건, ‘뉴시스’ 44건, ‘매일일보’ 19건, ‘헤럴드경제’ 6건으로 나타났음
- 헤드라인 주요 단어 분석
  - 1위는 ‘정조(정조대왕)’가 가장 높은 빈도인 242회 언급되었고, 2위는 229회의 ‘능행차’였으며, 3위는 100회의 ‘수원(수원시)’, 4위는 84회의 ‘재현’, 5위는 49회의 ‘취소’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공동(공동재현)’이 52회 나타났고, 가족체험단, 주민위원 등 ‘모집’이 44회 나타났음
  - 2016~2018년에 비해 서울(서울시)은 34회로 현저히 줄어들음
  - 반면 금천(금천구) 26회, 군포(군포시) 22회로 눈에 띄게 높아짐
  - 경기도구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됨에 따라 ‘돼지열병’ 20회 등장함
  - 서울 구간은 태풍으로 인해 배다리 시도식이 취소됨에 따라 이에 따라 ‘태풍’ 및 ‘배다리’도 각각 3회, 2회 있었음

## 5) 기사 분석 요약

- 시기별 언론보도 비교
  - 2016년과 2017년은 503건이 보도된 이후 2018년은 328건, 2019년 255건으로 감소하였음

- 2016년은 처음으로 서울시와 수원시가 공동재현을 한다는 점이, 2017년은 화성시 구간까지 포함한 전 구간이 최초로 재현된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2018년과 2019년은 태풍과 동물전염병으로 인해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서 언론보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행사 전/행사 중/행사 후로 나눠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사 진행 전 보도 기사 수가 많음
  - 행사 진행 전에는 행사 홍보, 각종 참여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 등의 보도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 행사 중 기사는 주로 행사 및 행렬 사진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었기 때문에 특히 행사 중 기사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비슷한 양상의 보도패턴을 보이는데 보통 행사 전 행사를 알리고 시민참여자를 모집하는 기사는 행사 시작을 기준으로 약 한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행사 기간 중에는 첫날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고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사설이나 논평을 제외하고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후에는 더 이상 보도되지 않음

〈그림 2-7〉 2016~2019년 시기별 언론보도 현황



#### ■ 언론사별 보도 현황

- 정조대왕 능행차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한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임

- 이들 언론사는 주로 행사 당일 능행차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하는 포토 기사를 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기사량이 많음

〈표 2-10〉 연도별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보도량이 많은 신문사

순위	2016년(건수)	2017년(건수)	2018년(건수)	2019년(건수)
1위	연합뉴스(67)	연합뉴스(59)	연합뉴스(51)	뉴스1(59)
2위	뉴스1(42)	뉴스1(57)	뉴스1(36)	연합뉴스(57)
3위	뉴스1(39)	뉴스1(44)	뉴스1(20)	뉴스1(44)
4위	국제뉴스(39)	국제뉴스(19)	매일일보(9)	매일일보(19)
5위	아주경제(15)	경인일보(6)	아시아뉴스통신(8)	헤럴드경제(6)

■ 헤드라인 주요 단어 분석

- 언론에 보도된 능행차 기사 헤드라인의 주요 단어로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수원’, ‘서울’, ‘화성’이었음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정조대왕’과 ‘능행차’로 각각 매년 1, 2위를 차지하였고, 2017년과 2018년 3위, 2016년과 2019년에는 4위를 차지한 단어는 ‘재현’임
    - 이 ‘정조대왕’과 ‘능행차’는 행사명이자 행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 ‘재현’은 행사의 특성,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통해 축제화한 행사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임
  - 4위와 5위의 빈도를 보여주는 단어는 ‘수원’, ‘서울’과 ‘화성’이라는 지역명임
    - 2016년에는 3위 ‘수원’, 5위 ‘서울’, 2017년과 2018년의 4위와 5위에 ‘수원’과 ‘화성’, 2019년에는 3위 ‘수원’이 나타남
    - ‘수원’, ‘서울’, ‘화성’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고 있음
- 연도별로 특별히 빈번하게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는 그 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2017년도 ‘완벽’, ‘222년’이 많이 언급된 것은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의 공동개최로 창덕궁부터 용인릉까지 59.2km에 달하는 길이를 최초로 재현했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임

- 2018년도 ‘태풍’, ‘콩레이’, ‘취소’와 2019년도 ‘돼지열병’, ‘취소’는 당해 행사진행에 차질을 가져왔던 상황의 반영임

〈표 2-11〉 정조대왕 능행차 기사 연도별 상위 5개 단어

순위	2016년(횟수)	2017년(횟수)	2018년(횟수)	2019년(횟수)
1위	정조대왕(493)	정조대왕(495)	정조대왕(306)	정조대왕(242)
2위	능행차(403)	능행차(450)	능행차(269)	능행차(229)
3위	수원(242)	재현(239)	재현(140)	수원(100)
4위	재현(227)	수원(152)	수원(112)	재현(84)
5위	서울(67)	화성(102)	화성(76)	취소(49)
기타	화성(66) 공동(65)	완벽(82) 서울(70) 222년(68)	공동(68) 서울(59) 태풍(26) 콩레이(21) 취소(19)	공동(52) 모집(44) 서울(34) 금천구(26) 군포(22) 돼지열병(20)

- 빈도 순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재해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단어로는 ‘교통통제’, ‘고증문제’, ‘운영미숙’ 등이 있음
- 연도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적인 주요 단어 분석 결과로는 1위 ‘정조대왕’ 1,536회, 2위 ‘능행차’ 1,351회, 3위 ‘재현’ 690회, 4위 ‘수원’ 606회, 5위 ‘화성’ 244회, 6위 ‘서울’ 230회, ‘공동’ 185회 순임

〈그림 2-8〉 언론보도 헤드라인 주요 단어



### 3. 빅데이터 분석<sup>5)</sup>

■ 분석 자료

- 2018년 수원시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일환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음

#### 1) 통신사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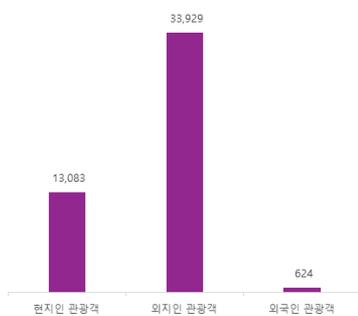
■ 통신사 데이터는 주로 인구 유입이나 이동 현황 등에 대한 내용임<sup>6)</sup>

- 방문객 즉 유입인구의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현황 및 거주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 유동 및 유입인구의 기초 데이터로는 외지인의 유입지역 분포, 능행차 구간 동별 유입인구 증감률, 동별·일별 유동인구 현황 등이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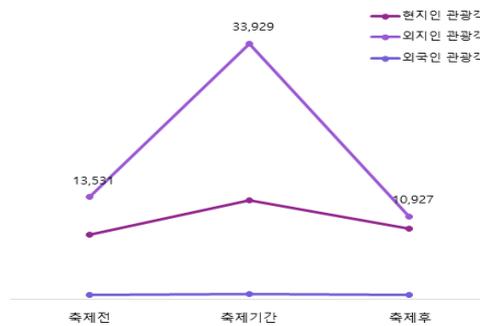
■ 방문객 데이터 분석 내용

- 정조대왕 능행차 관광객 일반 현황
  - 축제기간 내 유입인구 중 외지인 관광객이 33,929명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축제기간 전(4일)·중·후(4일)를 비교했을 때 축제 기간 중에 현지인과 외지인 유입인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축제 전 대비 축제기간 중 현지인 관광객은 53%, 외지인 관광객 150.75%, 외국인 관광객은 23.81% 증가하였음

〈그림 2-9〉 유입인구별 방문객 수



〈그림 2-10〉 기간에 따른 방문객 수 변화



5) 2018년 수원시에서 추진했던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장의 모든 데이터와 그래프는 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임

6) 유동 인구의 해당 지역에 대한 체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이나 관광 목적이 아닌 사람도 축제 방문객으로 집계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2018년 방문객 수는 전체적으로 2017년보다 감소되었으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2〉 2017~2018년 방문객 수 비교

(단위 : 명)

조사일	현지인 관광객	외지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2017.9.24	15,449	36,897	312
2018.10.7	13,083	33,929	624

## ○ 시간대별 방문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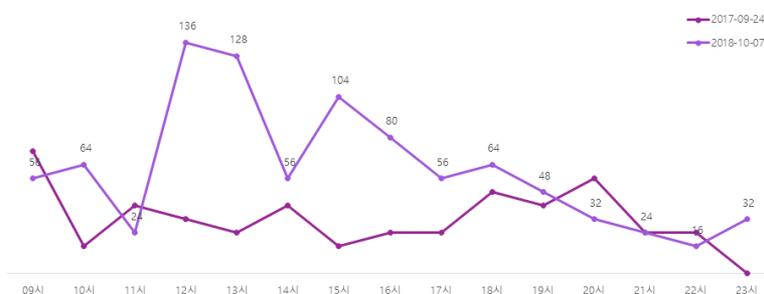
- 17시에 현지인과 외지인이 가장 많이 방문함
- 능행차 일정상 17시~18시에 군문의식, 대북퍼포먼스, 수원유수 정조맛이가 모두 팔달구 장안문에서 진행됨

〈그림 2-11〉 시간대별 방문객 추이



-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많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낮 시간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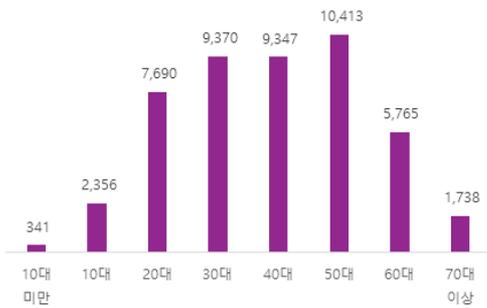
〈그림 2-12〉 시간대별 외국인 방문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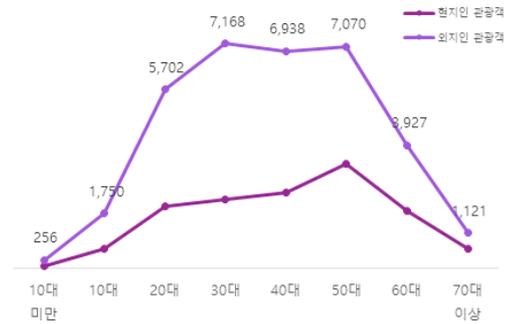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방문객 분석

- 2018년 방문객 중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방문객 수를 차지하는데 외지인 방문객은 30대가 가장 많고 50대, 40대 순임

〈그림 2-13〉 연령대별 방문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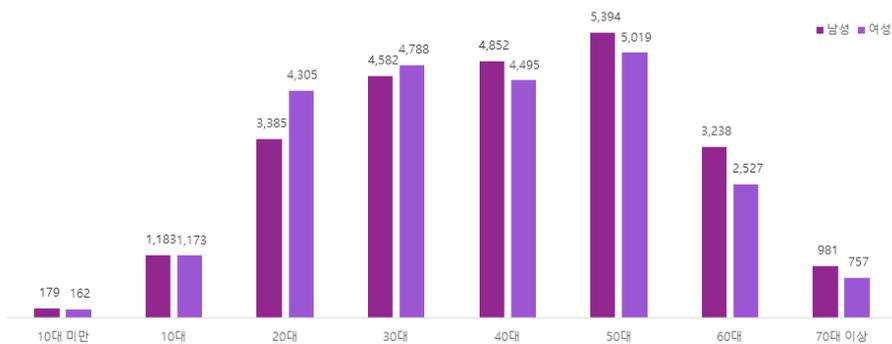


〈그림 2-14〉 연령대별 유입인구별 방문객 분포



- 20대 및 30대 연령은 여성이 많은 반면 40대 이상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5〉 성별, 연령별 방문객 분포



- 2017년 대비 2018년 방문객의 감소는 주로 30~50대에서 발생하였음

〈표 2-13〉 2017~2018년 연령대별 방문객 수 비교

(단위 : 명)

조사일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7.9.24	376	2,514	8,209	10,575	10,911	11,239	6,434	2,097
2018.10.7	341	2,356	7,690	9,370	9,347	10,413	5,756	1,738

○ 거주지별 방문객 분석

- 수원시 축제 관람객이 전체 방문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중 장안구 지역의 관람객이 가장 많았으며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순임

- 수원시 외의 방문객의 거주지는 화성시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용인시, 다음은 오산시, 성남시 순임

〈표 2-14〉 2017, 18년 거주지별 시군구 단위 상위 20개

순위	2017-09-24		2018-10-07	
	거주지	방문자수	거주지	방문자수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58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148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8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5,796
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0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4,123
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4,6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661
5	경기도 화성시	2,384	경기도 화성시	2,079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4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148
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3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022
8	경기도 오산시	623	경기도 오산시	501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73
10	경기도 군포시	357	경기도 군포시	392
11	경기도 평택시	34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50
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33	경기도 부천시	287
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84
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8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70
15	경기도 광주시	217	경기도 의왕시	256
16	경기도 부천시	217	경기도 평택시	242
1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2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196	경기도 광주시	210
19	경기도 의왕시	193	경기도 시흥시	200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193

- 수원시 기준 외지인의 유입지역 분포 분석
  - 수원시를 제외한 외지인의 유입지역 분포를 보면 상위 유입 지역은 수원시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고 하위 유입 지역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나타남

〈표 2-15〉 2017~18년 축제 중 유입인구(상위)

순위	2017년		2018년	
	유입지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유입지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1	경기도 화성시	16.62	경기도 화성시	18.53
2	경기도 용인시	15.77	경기도 용인시	16.62
3	경기도 안산시	5.11	경기도 안산시	4.87
4	경기도 안양시	3.56	경기도 오산시	3.75
5	경기도 오산시	3.35	경기도 안양시	3.14
6	경기도 성남시	3.01	경기도 성남시	2.95
7	경기도 평택시	2.77	경기도 평택시	2.66
8	경기도 군포시	2.39	경기도 군포시	2.32
9	경기도 부천시	1.91	경기도 의왕시	1.75
10	경기도 의왕시	1.58	경기도 부천시	1.67
	상위 합계	56.07	상위 합계	58.26
	그 외 240개 시군구	43.92	그 외 240개 시군구	41.78

〈표 2-16〉 2017~18년 축제 중 유입인구(하위)

순위	2017년		2018년	
	지역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지역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1	경상남도 의령군	0.0021	경상북도 울릉군	0.0009
2	경상북도 울릉군	0.0024	경상남도 의령군	0.0021
3	전라남도 진도군	0.0026	전라남도 곡성군	0.0027
4	경상북도 고령군	0.0028	경상북도 군위군	0.0027
5	전라북도 순창군	0.0033	전라북도 진안군	0.0031
6	전라남도 함평군	0.0039	전라남도 강진군	0.0036
7	전라남도 구례군	0.0054	부산광역시 중구	0.0037
8	전라남도 강진군	0.0055	전라북도 순창군	0.0048
9	경상북도 군위군	0.0060	경상북도 고령군	0.0056
10	전라남도 곡성군	0.0061	경상남도 고성군	0.0057

## ○ 동별 유동인구 현황 분석

- 유동인구 비중은 행궁동, 정자3동, 권선2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행궁동은 2017년도에도 가장 유동인구 비중이 높았으며 유동인구 10위 안의 동들은 순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과 2018년이 같게 나타남

〈표 2-17〉 2017~18년 동별 유동인구 비중 순위

순위	2017년		2018년	
	지역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지역명	유입인구 비중(단위:%)
1	행궁동	14.69	행궁동	19.98
2	조원1동	11.01	정자3동	10.48
3	정자3동	10.3	권선2동	9.4
4	파장동	9.21	영화동	8.95
5	권선2동	9.1	파장동	8.84
6	영화동	8.69	조원1동	6.59
7	곡선동	7.19	송죽동	6.45
8	송죽동	6.03	곡선동	5.57
9	정자2동	4.79	세류2동	5
10	세류2동	4.79	정자2동	4.57
11	지동	3.85	정자1동	4.31
12	매교동	3.61	지동	3.42
13	정자1동	3.47	매교동	3.35
14	세류3동	3.25	세류3동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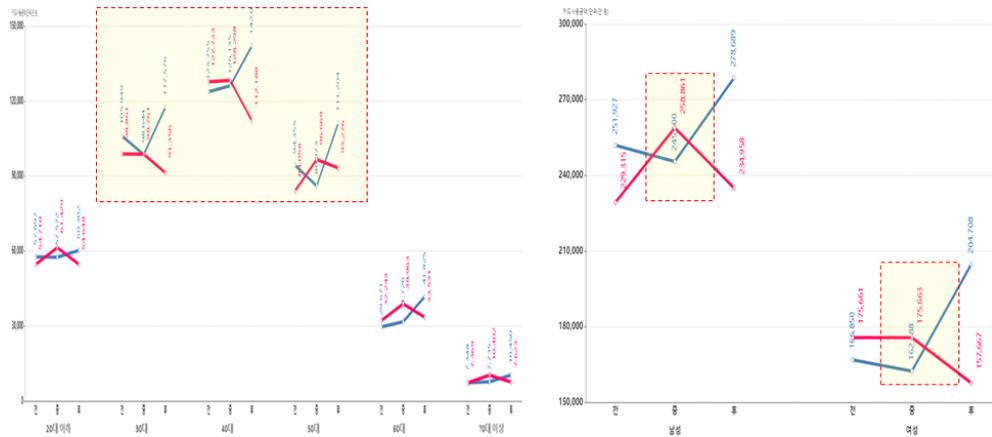
## 2) 카드사 데이터<sup>7)</sup>

- 카드사 데이터는 결제 금액에 따른 데이터 분석임
  - 동별, 업종별, 연령별, 성별, 시간대별 결제 금액을 통해 축제 중 관람객들의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음
  - 통신사 데이터와 유사하게 카드 결제자의 유입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 축제 방문객들의 지역 분포 또한 확인할 수 있음
- 결제 금액 데이터 분석
  - 소비밀집 지역 분석
    - 능행차 경로 구간에서 동별 결제금액은 행궁동과 권선2동이 높게 나타남

7)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카드사 데이터는 신한카드 데이터임  
(수원시(2018b),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p.42)



〈그림 2-18〉 연령대별(좌) 및 성별(우) 결제금액 추이



- 결제 금액 유입지 분포
  - 2018년 능행차 구간의 카드결제 유입지역은 수원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 서울 순으로 나타남
  - 상위 3개 지역인 수원시, 경기도(수원시 제외), 서울 이외에 인천, 충북, 충남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9〉 카드결제 유입지역



### 3) 온라인 데이터

- 온라인 포스팅 및 댓글 데이터를 가지고 행사에 대한 선호나 관심도 등을 분석함

- 분석 대상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뉴스, 트위터, 유튜브이며<sup>8)</sup>, 검색기간은 각각 2017년 및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브 프로그램명으로 검색을 수행함
- 프로그램별 검색 현황, 매체별 게시글 분석 및 추이, 프로그램별 주요 키워드 등이 분석되고 있음
- 능행차 프로그램에 대한 게시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이버 뉴스, 유튜브, 트위터 순임

〈표 2-18〉 매체별 게시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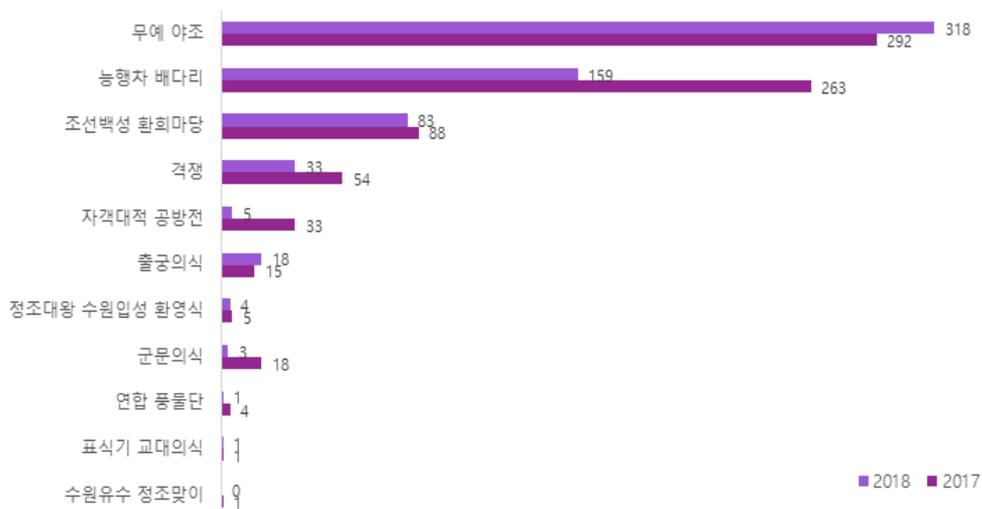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뉴스	유튜브	트위터
2017년	538	126	35	17
2018년	507	79	26	13

■ 온라인 게시글 데이터 분석 내용

- 게시글 건수 비교를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게시글이 많은 프로그램은 ‘무예 야조’와 ‘능행차 배다리’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예 야조’와 ‘출궁의식’ 관련 게시글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격쟁’, ‘배다리’ 관련 게시글 건수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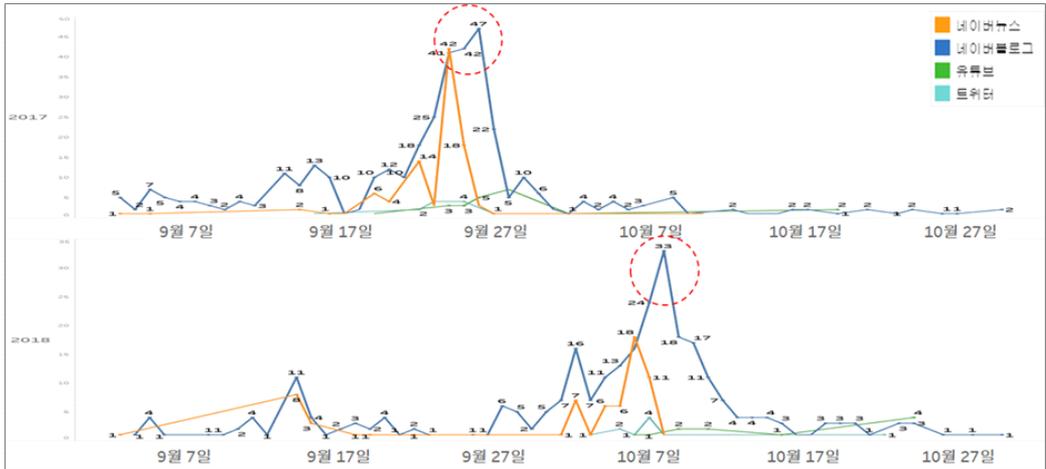
〈그림 2-20〉 세부 프로그램별 게시글 수



8) 인스타그램은 댓글 등록일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게시글이 작성되는 추이를 보면 행사 당일 직후에 주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21〉 검색 매체별 게시글 추이



- 능행차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의 주요 키워드로는 ‘정조’, ‘감사’, ‘행사’ 등의 키워드로 긍정적인 단어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그림 2-22〉 2017년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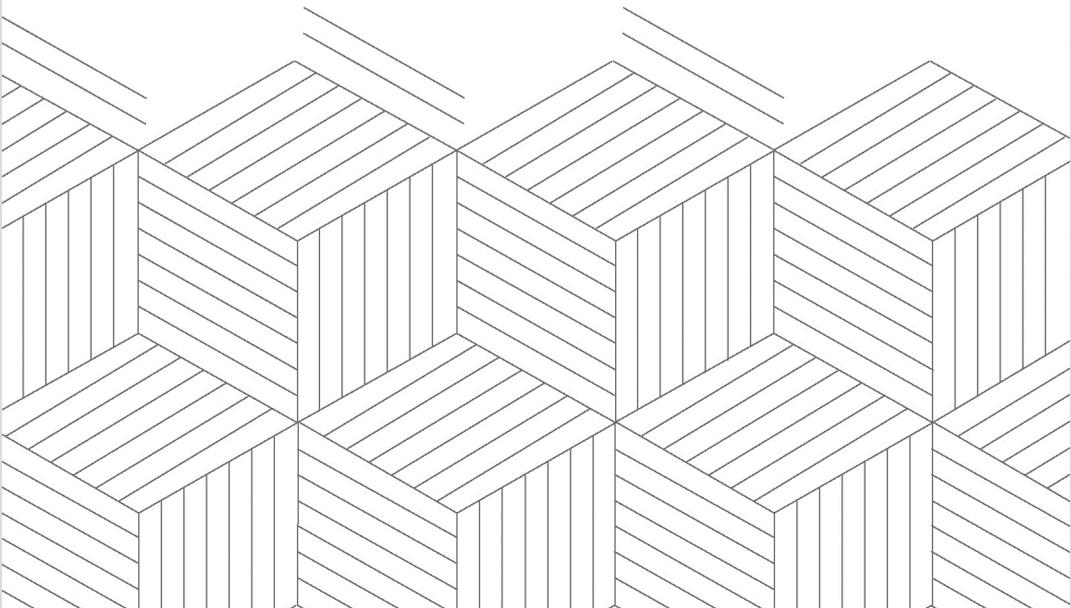
〈그림 2-23〉 2018년 주요 키워드





# 제3장 개선방안 의견조사

제1절 시민 조사  
제2절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 제3장 개선방안 의견조사

### 제1절 시민 조사

#### 1. 관람객 설문조사

##### 1) 개요

- 조사목적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관람경험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조사대상
  - 조사기간 내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관람한 시민 220명
- 조사내용
  -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여부
  - 정조대왕 능행차 인식
  - 정조대왕 능행차 만족도
  - 정조대왕 능행차 향후 개선사항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대행업체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2020.09.07. : 조사계획 수립 완료
  - 2020.09.09. ~ 2020.09.14. : 설문조사 수행
  - 2020.09.14. ~ 2020.09.21. : 데이터화 작업 및 결과물 도출

〈표 3-1〉 관람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부문	조사 항목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여부 (2문항)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 경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람연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경험 (6문항)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람 장소(9곳) 정조대왕 능행차를 알게 된 경로 및 관람 경로 2016년 이전의 능행차 관람여부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능행차 재현 차이점 인지여부 수원시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 중 선호도
정조대왕 능행차 개선방안 (7문항)	능행차 재현의 개최 주기(격년제 및 3,4년제) 능행차 재현의 개최 시기 (봄 혹은 가을)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 및 독립적 행사 진행 여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프로그램 만족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부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의미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응답자 관련 문항 (5문항)	성별, 출생연도, 거주 지역, 혼인여부 및 자녀여부, 가족관계

## 2) 조사 결과

### ■ 능행차 관람 여부

#### ○ 능행차 관람 연도

- 설문 응답자들은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능행차를 관람하였고 이어서 2017년, 2016년, 2019년 순임

〈표 3-2〉 능행차 관람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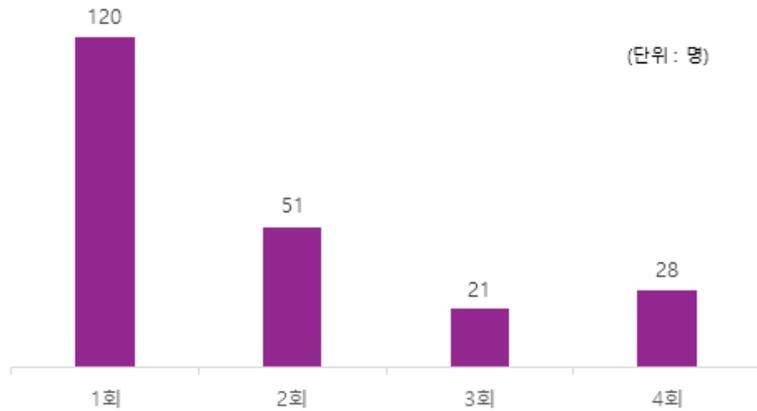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응답수	94	115	125	63

#### ○ 능행차 관람 횟수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응답자들의 관람횟수는 1회가 12회로 가장 많고, 2회가 51회, 4회가 28회, 3회가 21회임

〈그림 3-1〉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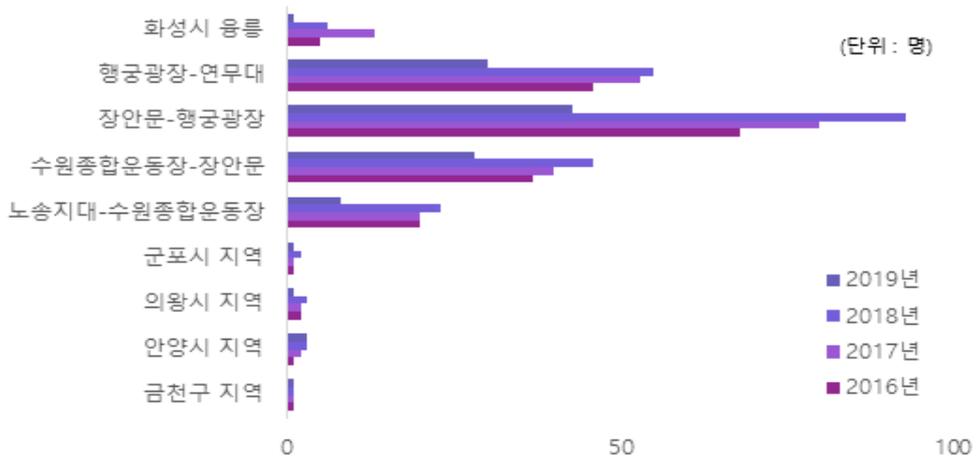


■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경험

○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장소(중복응답 허용)

- 정조대왕 능행차를 관람한 장소로는 장안문-행궁광장 구간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행궁광장-연무대 구간, 이어서 수원종합운동장-장안문 구간,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 구간 순으로 나타났음
- 수원시 외 지역으로는 화성 응릉이 높았고,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는 거의 없음

〈그림 3-2〉 능행차 관람 장소



○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경로(중복응답 허용)

- 어떠한 경로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를 보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광고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보러왔다는 응답이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음

- 두 번째로 ‘역사 문화 축제에 관심이 많아서’가 23.0%, 세 번째로는 ‘관련 경험이 있는 지인의 추천’으로가 12.6%, 다음으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가 12.0%로 나타났음

〈그림 3-3〉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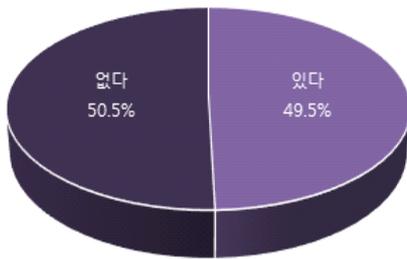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인지 경로
  - ‘리플릿,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3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 추천’이 24.4%, 세 번째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가 18.4%, 다음으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8.1%, ‘신문사, 잡지기사 등 인쇄매체’가 6.9%로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수원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행사시기를 알고 있음’, ‘전년도에 행사를 보고’,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나가다 우연히’ 등이 있음

〈그림 3-4〉 정조대왕 능행차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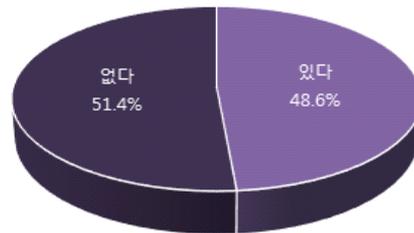


- 2016년 이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의 비교
  - 2016년~2019년까지 관람객 중 2016년 이전에 관람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각 109명과 111명으로 비율이 비슷하였음
  - 2016년 이전에는 수원화성문화제 일부 행사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개최된 반면 2016년 이후에는 수원화성문화제와는 별도로 타 지자체와의 함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로 추진된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약 절반의 응답자들이 차이를 느끼고 있었음
  - 2016년 이전과 이후 행사에서 차이를 느낀 부분으로는 ‘행사 규모의 차이’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14명, ‘매스컴 보도의 차이’ 5명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5〉 2016년 이전 능행차 관람여부



〈그림 3-6〉 2016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 인지 여부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구간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구간 선호도
  - 2016년 이전처럼 수원시 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만 진행하는 것과 현재처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각각 106명(51.8%)과 114명(48.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음

〈그림 3-7〉 전 구간 재현과 수원시 구간 재현 선호도



- 수원시 구간 진행 선호에 대한 이유
  - ‘수원시만의 특별한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아서’라는 의견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원시만 진행할 경우 행사의 내용과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는 25.5%를 차지하였음

〈그림 3-8〉 수원시 구간 선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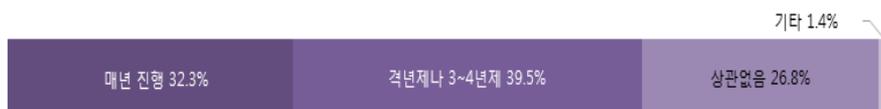
-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 재현 선호 이유
  -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라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4.4%가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많아서’와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관광성으로 보았을 때 좋아서’가 각각 14.9%, 13.2%, 12.3%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9〉 전 구간 재현 선호 이유



-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 주기
  - 전 구간 재현 주기 선호도
    - ‘전 구간 매년 진행’과 ‘격년제 및 3,4년제’가 각각 32.3%와 39.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들도 26.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0〉 행사 주기 선호



- 전 구간 재현의 매년 진행 선호
  - ‘행사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로 응답한 사람이 3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와 ‘수원을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가 또한 각각 31.0%와 26.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1〉 매년 개최 선호 이유



- 격년제 혹은 3,4년제 개최 선호 이유
  - ‘행사의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9.9%, ‘매년 진행하는 것 보다 가끔 보는 것이 새로운 것 같아서’가 23.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2〉 격년제 및 3,4년제 개최 선호 이유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독립성

- 공동재현 행사의 독립 여부
  - ‘비록 전 구간 행렬이라 하더라도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157명(71.4%)로 ‘전 구간 행렬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수원화성문화제와는 독립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의 63명(28.6%)보다 2배가 넘고 있음

〈그림 3-13〉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독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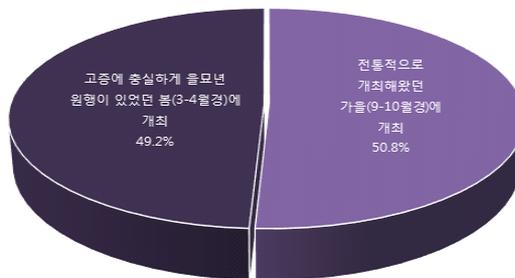
-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 ‘전통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해왔으므로’라는 답변이 28.7%로 가장 많으나, ‘행사기간 중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볼거리나 놀거리가 다양할 것 같아서’, ‘수원지역 관람객이나 타 지역 관람객들이 더 많이 보러 올 것 같아서’,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개최되는 것이 행사 규모가 클 것 같아서’라는 의견 또한 각각, 24.8%, 22.9%, 22.3%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4〉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개최 선호 이유



- 독립 추진 시 개최시기(독립 추진 찬성 응답자만 응답)
  - ‘전통적으로 개최해왔던 가을(9월~10월경)에 개최’하자는 의견과 ‘고중에 충실하게 을묘년 원행이 있었던 봄(3월~4월경)에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 각각 50.8% (32명)와 49.2%(31명)로 차이가 없음

〈그림 3-15〉 개최시기 의견



- 시기별 개최 선호 이유
  - 가을(9~10월경)에 개최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가을에 개최해 왔으므로’라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함으로써 보다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므로’와 ‘봄보다는 야외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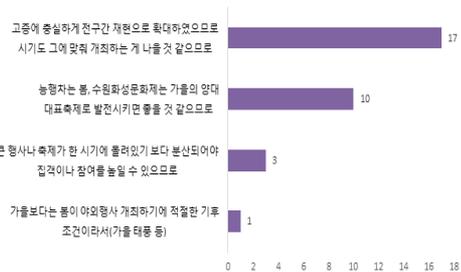
개최하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므로(봄 미세먼지 등)에 동의하는 수도 크게 차이하지 않음

- 봄(3~4월경) 개최 선호 이유로는 ‘고중에 충실하게 전 구간 재현을 확대하였으므로 시기도 그에 맞춰 개최하는 것이 나올 것 같으므로’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고, 그 밖에는 다음으로 ‘능행차는 봄, 수원화성문화제는 가을의 양대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으므로’라는 의견이 30%를 넘고 있음

〈그림 3-16〉 가을(9~10월경) 개최 선호 이유



〈그림 3-17〉 봄(3~4월경) 개최 선호 이유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공동재현’의 의미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전통문화 관광축제로의 대표성’이라는 의견이 150명(3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최대 역사 퍼레이드 축제로서의 상징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가치 발굴’이 각각 91명(19.7%)과 83명(18.0%)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주었음
  - 이어서 ‘다양한 참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소통축제로서의 화합성’, ‘서울시-경기도와 연계하는 축제로서의 연계와 협력의 가치성’이 각각 73명(15.8%)과 64명(13.9%)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8〉 공동재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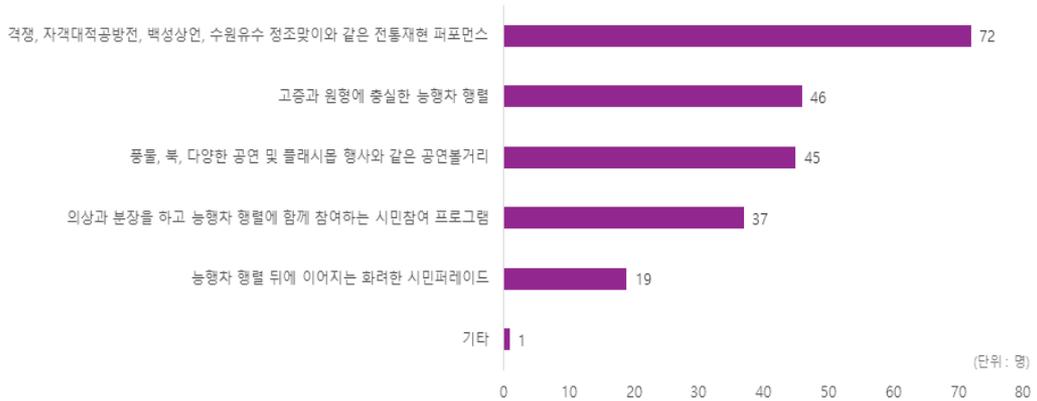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활성화 방안(중복응답)
  -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135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였고 이어서 123명이 ‘시민들의 협조(교통통제 및 안전유의 등)’를 선택하였음
  - ‘경기도 내(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등)의 협력체계 구축’은 93명, ‘능행차 행렬의 온라인 중계 채널 다양화’는 68명, ‘공동 홈페이지의 상시운영’은 21명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기타의견으로 ‘관람객의 관람무질서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남녀노소 전 연령대의 관람객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 구축’과 ‘홍보와 마케팅’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그림 3-19〉 능행차 재현행사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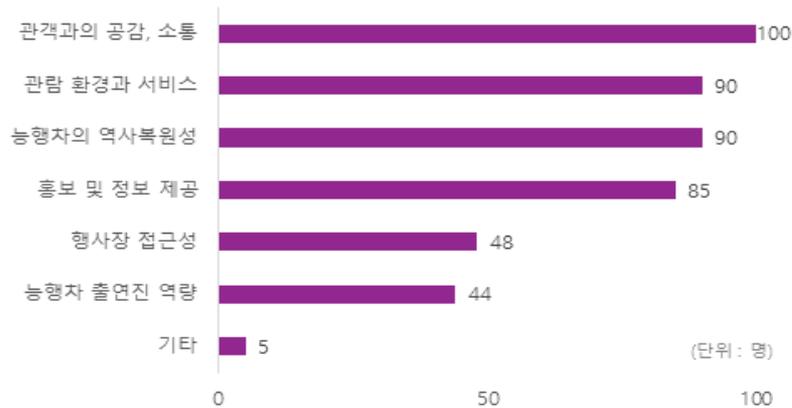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보다 강조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백성상연, 수원유수 정조맞이와 같은 전통재현 퍼포먼스’라는 답변이 72명(32.7%)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고증과 원형에 충실한 능행차 행렬’과 ‘풍물, 북, 다양한 공연 및 플래시몹 행사와 같은 공연 볼거리’는 각각 46명(20.9%)과 45명(20.5%)로 같게 나타났고 이어서 ‘의상과 분장을 하고 능행차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37명(16.8%)이 응답하였음
  - ‘능행차 행렬 뒤에 이어지는 화려한 시민퍼레이드’는 19명(8.6%)만이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20〉 강조 프로그램



-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후 개선사항(중복응답)
  - ‘관람객과의 공감, 소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람 환경과 서비스’와 ‘능행차의 역사복원성’은 각각 90명, ‘홍보 및 정보 제공’은 85명이 선택하여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행사장 접근성’과 ‘능행차 출연진 역량’은 각각 48명과 44명이 선택하였음
  - 기타의견으로는 ‘관람까지 장시간 대기 중 퍼포먼스의 필요성’과 ‘높은 완성도’, ‘효 문화의 중요성 강조’, ‘관람객들의 무질서 개선’ 등이 있었음

〈그림 3-21〉 관람 후 개선사항



## 2. 시민참여자 조사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 실제로 참여한 시민참여자의 참여 계기 및 현장경험 등을 확인하고 시민참여자가 인식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청취
- 이를 종합하여 정조대왕 능행차 발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조사대상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시민참여자 : 공연, 행렬참가자, 자원봉사, 시민기자 등
  - 공연참가자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사전 공연 및 행렬 내 공연을 진행
  - 행렬참가자 :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내 병사 등 각종 역할로 참여
  - 시민기자 : 수원시민 및 수원시 연고자가 수원시정 홍보 및 수원시정과 관련된 수원시민 이야기 보도
  - 자원봉사자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관련 지원 업무
- 조사 대상 특성
  - 구분별로는 공연 참여자 3명, 행렬참가자 2명, 자원봉사자 1명, 시민기자 1명임
  -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3명임
  -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으로 구성

〈표 3-3〉 조사 대상

이름	성별	연령	참여내용	비고
P1	남성	60대	풍물단	개별인터뷰
P2	여성	40대	풍물단	개별인터뷰
L1	남성	40대	풍물단	개별인터뷰
K1	남성	40대	행렬참가자	개별인터뷰
P3	남성	50대	행렬참가자	서면
B1	여성	50대	자원봉사자	개별인터뷰
S1	여성	30대	시민기자	서면

#### ■ 조사내용

- 정조대왕 능행차 참여 경험
- 능행차 운영방안 변경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독립, 능행차 재현의 지향점, 개최주기 및 시기
- 기타 건의 사항
- 조사방법
  - 개별인터뷰 및 서면인터뷰
- 조사기간
  - 2020.7.3.~ 8.13

## 2) 시민참여자 인터뷰 결과

- 정조대왕 능행차 참여 계기
  - 시민참여자 모두 수원 시민으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동안 관람함
  - 학창시절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계속 참여해왔던 경우도 있고 주변의 권유나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참여함
  - 수원시민이라면 당연히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축제로 여김
- 참여 소감
  -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수원만의 특별한 행사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음
  -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됨
-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 고증에 충실한 재현 혹은 흥미와 축제위주의 재현
    - 원형 행렬만 보존하다보니 시민 참여 퍼레이드가 축소됨
    -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 흥미와 축제의 재미가 있어야 모일 동력이 생김
  - 개최 주기
    - 수원시 내부에서는 과거처럼 매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전 구간 재현은 격년제 혹은 3,4년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기후문제나 재난 상황에서의 행사 진행 방식
    - 문화, 예술, 축제 부분은 축소하더라도 진행해야 함
    - 취소를 하다보면 시민들이 잊어버릴 요인이 생기므로 대안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함
  -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제의 분리 및 장단점

- 능행차는 봄, 수원화성문화제는 가을에 하여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 좋음
- 능행차가 분리되어 다른 시즌에 진행하더라도 가을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소규모라도 능행차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더 나은 행사 추진 및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 연령대를 고려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 제2절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행사 및 축제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사업관계자 및 관련 지자체가 인식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조사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점 및 발전방향 파악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 : 정조대왕 능행차를 기획, 진행 및 참여한 감독, 재단, 수원시 관계자
  - 지자체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경기도 구간 내 지자체 담당자
  - 전문가 : 축제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표 3-4〉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 특성

구분	이름	소속 및 직함	비고
사업관계자	신○○	정조대왕 능행차 감독(2016~17)	개별인터뷰
	곽○○	정조대왕 능행차 감독(2018~현재)	개별인터뷰
	김○○	수원시 관광과 주무관	개별인터뷰
	심○○	수원문화재단 팀장	개별인터뷰
	김○○	수원시 관광과 관광과장	개별인터뷰
	서○○	수원시 관광과 팀장	개별인터뷰
	이○○	수원시 관광과 부팀장	개별인터뷰
	채○○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 부장	개별인터뷰
경기도 지자체	김○○	경기도 관광과 주무관	개별인터뷰
	이○○	안양문화원 과장	개별인터뷰
	이○○	화성시 문화예술과 축제팀장	개별인터뷰
	조○○	화성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개별인터뷰
전문가	추○○	다음기획 대표,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서면자문
	유○○	세계축제연구소장	서면자문
	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서면자문
	김○○	한신대 교수	서면자문
	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개별인터뷰

- 조사내용
  - 제기되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운영방안 변경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 정조대왕 능행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간 협조방안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및 전략
  - 기타 제안 사항
- 조사방법
  - 개별인터뷰 및 서면자문
- 조사기간
  - 2020.6.9.~2020.11.9

## 2. 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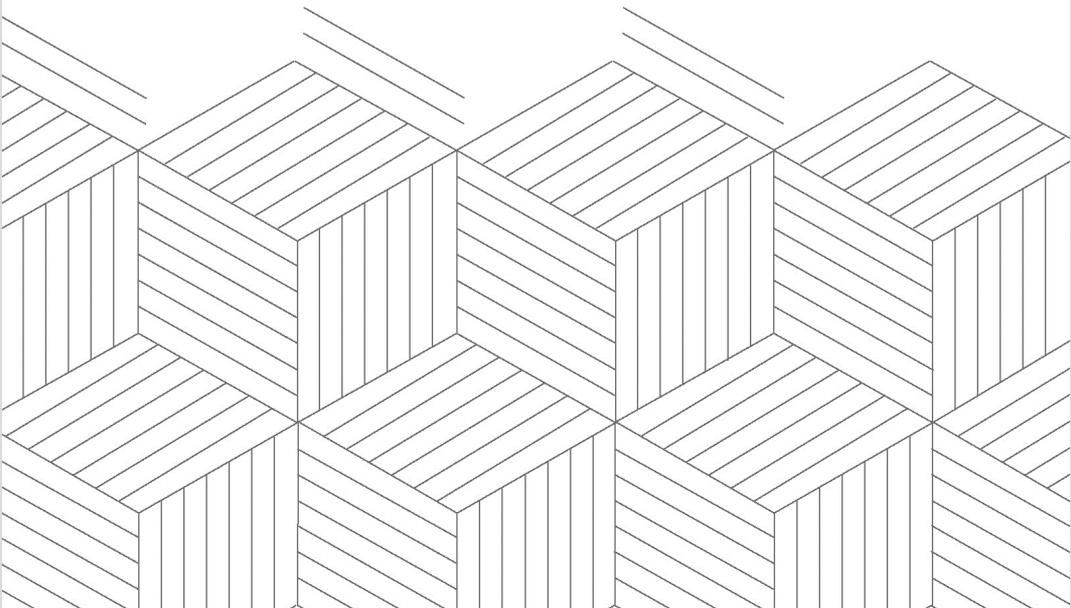
- 운영방안 변경 쟁점사항 의견
  -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의 시기적, 물리적 분리
    -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언론 및 방송매체에는 노출이 잘 되고 있으나 수원화성문화제와 중복되어 혼돈스러움
  - 개최시기
    - 고증에 맞게 4월(봄)에 진행
      - 시작은 함께했으나 현 시점에서 분리하여 고증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역사적 근거가 있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소재이므로 독자적인 축제 추진이 필요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에도 고증에 철저한 것이 적합함
      - 상춘객을 축제로 모으기에 유리함
      - 태풍에 위험에서 자유로움
      - 수원화성문화제와의 중복성 탈피 및 홍보에 유리함
    - 현행대로 10월(진행)
      -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확장적 추진의 입장에서 좋음
      - 같은 시기에 진행하더라도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의미하므로 축제 간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해야 함
      - 두 축제의 주요 장소적 범위가 수원화성으로 동일하므로 축제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다름
  - 공동재현의 의지에 따라 4월(봄)에 지자체 협력 혹은 현행대로 10월(가을)에 추진
- 개최주기
  - 전 구간 매년 진행
    -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
    - 고증에 기반을 둔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여 매년 다양한 주제로 생명력을 더해야함
    - 매년 완성도를 높여가며 개최하는 것이 중요함
    - 완성도가 높으면 그 자체로 볼만한 가치가 생김
  - 격년제 혹은 3년제 진행
    - 축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격년이나 3년제도 좋음
    - 전 구간 행렬은 격년제나 3년제로 하고 수원시 구간만 별도로 매년 진행
- 재현행사의 지향점 : 고증에 철저한 행렬중심의 재현 또는 관람객들의 흥미와 퍼레이드 중심
  - 역사적 행사이기에 고증에 바탕을 둔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함
  - 고증에 충실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하면 관광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질 것
  - 역사적 행사의 경우 흥미 및 재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수원화성문화제가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음
  - 수원만의 독특한 시민참여 방식과 연출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제로 도약이 필요
- 기후문제와 재난 상황으로 인한 행사취소 혹은 축소 진행 이외의 대안적 방식
  - 퍼레이드 말고 다른 방식의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온라인 체험(가상/증강현실) 즉, 온택트(Ontact) 방식
    - 다양한 공간에서 능행차를 관람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조시대의 위기 극복 의식을 시의성 있게 활용하여 현대적 구성
    - 현장형 프로그램은 최소화하되 위기상황을 활용한 언론 및 미디어 노출 극대화
  - 거리축제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의 일상에서 특별하게 경험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
- 정조대왕 능행차가 글로벌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는 요건
  -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과 중요성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

-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동시대적인 가치가 다양하게 생성되어 관광산업효과가 나타날 때 확장성이 생길 것임
- 다양한 방식의 참여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세분화해야함
- 다양한 세대감성이 확장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성과 유연성이 드러나야 함
- 정조대왕 능행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지자체간 조직체계 구축 방식
  - 능행차 전담기구 및 컨트롤타워 구축
    - 지자체간 네트워크와 운영을 총괄 감독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 필요
    - 능행차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하는 기능도 필요함
  - 축제의 국제화 및 국제적 홍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가 단위의 운영 참여가 필수적
    - 장기적으로는 국가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의 관심을 끌기엔 아직 부족함
    - 수원시와 타지자체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인지시켜야 함
    - 언론 및 방송매체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
    - 지역 거점의 축제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전문가들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 필요
- 기타 제안 및 고려사항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출팀 구성을 고려해야함
  -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축제브랜딩을 명확히 해야 함
  - 최소 규모의 능행차 상시 운영
  - VR영상 제작과 상영관 운영을 통한 문화 공간 구축

# 제4장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사업 발전방안

제1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발전방향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제4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사업 발전방안

## 제1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발전방향

## 1. 조사 및 의견 분석

## 1) 분석 시사점

- 고증에 충실한 재현과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간의 조화
  - 전문가들은 충실한 고증에 기반한 재현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함
    - 고증의 해석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화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음
  - 시민들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큼
- 개최형태와 시기, 주기
  - 전문가들은 재현이라는 의미, 지자체간 협력 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능행차를 수원화성문화제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권장
    - 각각 수원시의 봄과 가을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능행차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 시민들의 경우 오랫동안 수원화성문화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능행차를 독립하여 다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편입
    - 일부 시민 특히 직접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별도 개최를 찬성하기도 함

- 전문가나 시민들이나 개최주기는 연속성 및 각인효과 등이 중요하기에 매년 개최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우세하지만 행사의 질이나 준비 등을 고려해 격년이나 3~4년제에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음
- 전 구간은 격년이나 3~4년제로 개최하더라도 수원시 구간은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함
- 중앙정부 협조 및 참여 지자체 간의 협력
  - 향후 서울시의 입장이 능행차 행사의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가장 관건임
  - 문체부나 문화재청 등의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업과 지속가능성의 유지가 중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의 행사 이상이 되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음

## 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SWOT 분석

- 강점
  - 원행음묘정리의궤 기록에 따른 고증
    -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원행음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현대적 복원
  -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 축제
    - 서울 창덕궁에서 용릉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59.2km의 최장거리 및 참여 인원 약 5,000여 명, 참여 마필 약 600필의 전국 최대 규모
  - 국내 유일한 지자체간의 공동 축제
    - 서울시와 수원시의 협력으로 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경기도, 화성시 등 연관된 11개의 지자체가 함께 함
  -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행사 노하우 축적
    - 수원시는 1975년부터 능행차 퍼레이드를 진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약점
  - 참여 지자체 조율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 11개 지자체간의 조율의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 부재함
    - 가장 주도적이고 행사경험이 쌓인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자체라는 한계가 있음
  - 행사 정체성의 혼재

- 문화유산의 복원·보존의 입장과 문화관광축제로서 관광상품 개발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
  - 행차라는 행사 특성과 반복 재현의 단조로움
    - 행차라는 단순한 형식의 행사를 매년 반복하는 데서 발생하는 단조로움과 식상함
  - 마필 관리의 어려움
    - 행사에 소요되는 훈련된 마필을 대규모로 동원하기 쉽지 않음
    - 행사 도중 예기치 않은 말의 행동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기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 행차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음
    -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 요건에 맞는 전략을 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함
  - 중앙정부 유인 가능성
    - 특정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국왕의 행차이며 다수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수원시 대표축제화 및 관광상품 가능성
    - 역사성이나 전통성뿐 아니라 행사 규모에서도 수원시의 대표축제이자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위기
- 대규모 예산 소요 및 취소 시 큰 매몰비용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이기에 사회적인 경제 위기나 지자체 재정위기가 올 경우 축소·폐지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행사 취소시 사전홍보비, 행사 사전준비를 위한 각종 임차비용, 무대설치비용, 각종 위약금 등이 손실비용이 됨
  - 기후 및 대기 영향
    - 야외행사이므로 우천, 태풍, 폭염이나 이상기온 등 날씨의 영향이 큼
    - 최근에는 미세먼지 발생과 같은 대기조건도 행사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해요인 잠재

- 신종플루, 메르스에서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의 발생,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동물계 감염,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사고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의 여지가 점점 높아짐
- 지자체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요인
-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협력이 깨질 수 있음

〈그림 4-1〉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SWOT 분석



## 2. 발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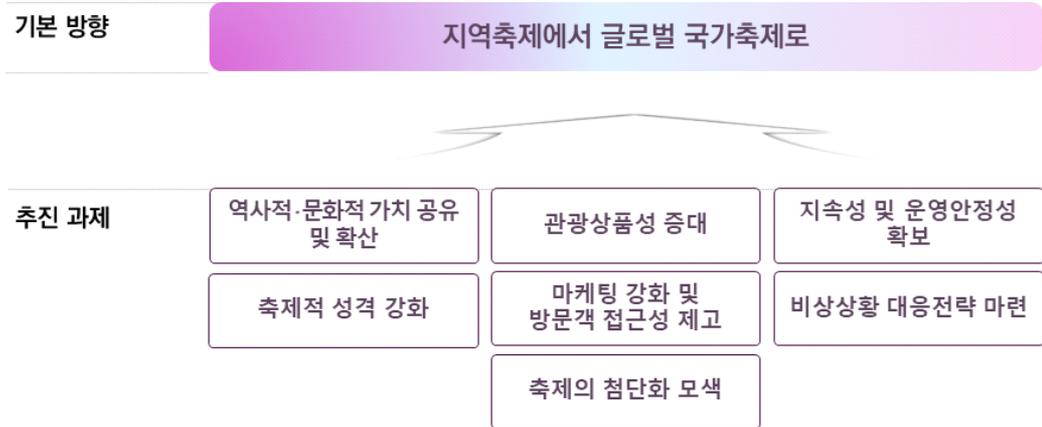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의의에 대한 확인
  - 현실에 재현한 기록문화유산
    -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을 현실에 성공적으로 재현한 무형문화유산의 복원 성과

### 원행을묘정리의궤

- 궁중음식, 궁중무용, 궁중의식 등 무수한 역사적 지식과 정보 기록
- 행렬인원 1,779명, 마필 779필 규모의 능행차 구성의 기록
- 수원행차 직후 1795년 윤2월 27일 의궤청에서 2년 만에 발간

- 역사상 최고의 축제 재현
  -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능행차 기록을 재현한 고증을 통한 문화 콘텐츠화의 성공사례
  - 최장거리 행렬 : 서울 창덕궁에서 용릉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59.2km 완벽 재현
  - 최대규모 행렬 : 참여 인원 약 5,000여 명, 참여 마필 약 600필의 전국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
- 거버넌스 축제
  - 전국에서 유일하게 11개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 서울시와 수원시의 협력으로 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경기도, 화성시 등 연관된 지자체들이 참여를 이끌어냄
    - 참여 지자체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지향점
  - 기본방향 : 지역축제에서 글로벌 국가축제로
    - 세계에 내놓을 문화 콘텐츠 :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축제
  -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바탕 위에 축제성과 상품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행사를 지속해가야 함
  - 이를 위해 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자 함
    -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 및 확산
    - 축제적 성격 강화
    - 관광상품성 증대
    - 마케팅 강화 및 방문객 접근성 제고
    - 축제의 첨단화 모색
    - 지속성 및 운영안정성 확보
    - 비상상황 대응전략 마련

〈그림 4-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발전방향



##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1.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 및 확산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정조대와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의 행사를 현대의 문화 콘텐츠화 하는데 성공한 사례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원행음묘정리의궤의 기록을 현대에 재현한 무형문화유산 복원의 성과
  - 300년 전의 행사를 현대에 재현할 수 있는 것은 1795년 행차의 기록인 『원행음묘정리의궤』에 문자기록과 시각자료를 통해 세세한 면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 의궤 자료에 근거해 300년 전 행사의 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조선시대 기록 자료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재천명하는 것임

#### 2) 추진 내용

- 연계 학술행사 개최
  - 능행차 행사시기에 맞춰 매년 연계 학술포럼 개최
  - 학술적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고증과 의미 공유
- 능행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용 자료 배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수자들을 행렬참가단 등에 참여하도록 함

〈그림 4-3〉 정조대왕 능행차 교육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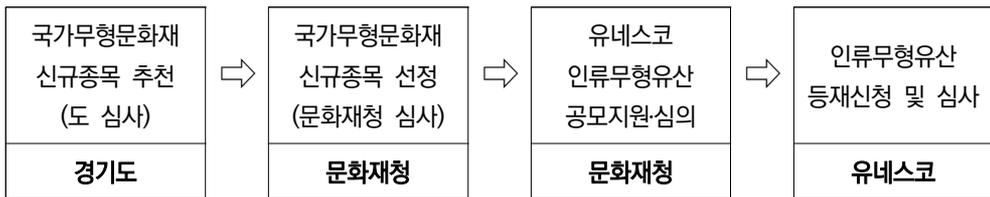


■ 국가 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등재 필요성

- 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기록유산 원형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1795년 정조대왕의 을묘원행 전 구간(59.2km)을 완벽하게 복원한 사례
- 세계관광기구 UNWTO가 선정한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2018년)을 수상한 국내 최대 왕실 퍼레이드 축제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축제 등재 사례(37개)중 국내 지자체 연합의 대규모 축제는 없음

○ 등재절차



- 등재신청에서 심의대기까지 소요기간 : 최소 5년 이상

- 국가무형문화재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148건) 대부분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등재신청 대상은 2년에 1개 지정

○ 현 등재 가능성

- 현재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지정사유 미달하는 상황임

- 전승주체가 공공기관 주관(주최)의 관변행사
- 전승역사가 50년 미만의 현대행사임
- 정조 재위(1776~1800)중 비정기적인 행사(13회)

- 무형문화재 지정 경향

-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상 반영, 주도자로서의 참여
- 전승가치가 공동체에 부여하는 의미(자긍심, 일체감)
- 남성주도가 아닌 여성의 주체적 역할 강조

○ 전략

- 신청 소재를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능행차를 포함한 다른 소재로 확대

- 예시 1) 수원화성문화제 : 수원화성 속 궁중의식을 수원 시민을 맞이하여 즐기는 공동체적 행사로 확대하여 세계기록유산(의궤)을 근거로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에서 펼쳐지는 공동체의 참여(생활)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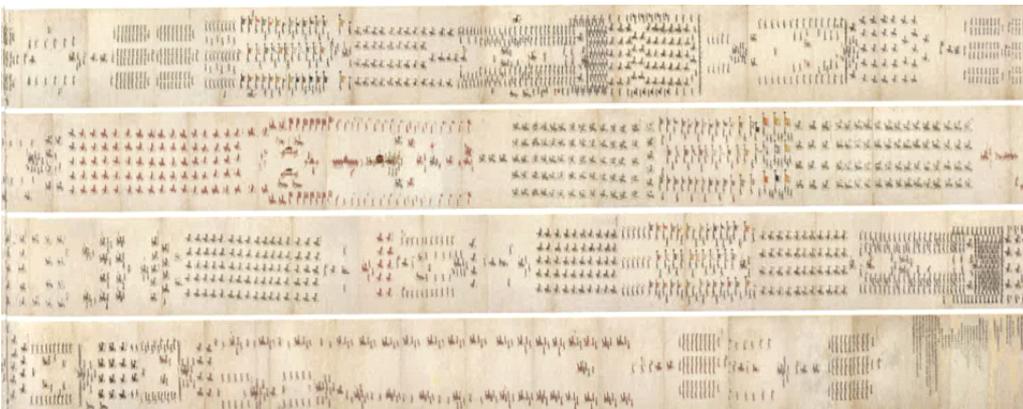
- 예시 2) 조선시대 능행 : 을묘년 행차뿐 아니라 조선시대 국왕 행차 전체를 무형문화재로 추진
  - 경기도 무형문화재 우선 신청 및 지정
  -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 2. 축제적 성격 강화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정조대왕의 원행 자체가 왕실과 백성이 어우러지는 축제 마당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 능행시에는 참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렬 과정에서 상언·격쟁 등을 통해 최고 지도자와 일반 백성이 소통하는 장을 제공하였음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단지 외형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축제적 특성까지 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현재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 축제
  - 최대 규모의 행렬 인원 및 마필, 최장거리 행차 등 가장 규모가 큰 퍼레이드 행사
    -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퍼레이드는 찾아보기 힘들
  -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축제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참여

〈그림 4-4〉 정조대왕 능행



자료 : 신교준 감독 제공

## 2) 추진 내용

- 시민 역할에 대한 재고 및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모색
  - 능행차 참가팀 선발 경쟁 및 영상 제작
  - 전통재현 퍼포먼스 참여 시민공연팀 공모
  - 말이나 복장, 소품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림 4-5〉 SNS를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



자료 : 수원화성문화제 [instagram.com/p/CH9\\_NiKHM4/](https://www.instagram.com/p/CH9_NiKHM4/)

- 구간별 특성화
  - 구간에 따라 고증에 중점을 둔 원형 재현 구간, 시민 참여 중심의 놀이 구간, 공연 중시의 구간 등으로 특성화하여 진행
  - 전 구간 원형 재현의 부담을 덜면서 행렬의 다양성과 시민 참여 축제적 성격을 보완할 수 있음

## 3. 관광상품성 증대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숙박, 교통, 관광기념품, 특산품, 주변관광지 및 관광시설 활용 등에 의한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김창수 외, 2016)
  - 지역축제는 방문객이 소비하는 비용과 체류기간을 늘리는 데 촉매역할을 함

- 지역축제는 관광체험을 증가시켜 축제 개최지에서의 지역흥미를 유지하면서 신선함을 제공하고 지역의 매력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함
- 정조대왕 능행차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수원 지역의 정체성, 존재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 문화원형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및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정조대왕 능행차는 인마(人馬)가 조화롭게 구성된 왕의 행렬 재현을 통해 한국만의 독창적인 퍼레이드 문화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임
- 지역축제로서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상품성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 및 수익창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수도권 여러 지역의 원행길을 지나감으로써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리축제화 가능
  -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축제 구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모색 필요

## 2) 추진 내용

- 부대행사 및 참여 이벤트 확대 : K-culture와의 콜라보
  - K-pop과 궁중음악 등 한국전통음악으로 구성된 콘서트 기획
  - 수원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K-beauty 엑스포와 같은 산업전시행사 개최
- 적극적인 해외 참여자 상품 판매
  -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협력
  - 준비과정과 축제 이야기를 별도의 영상으로 기획

〈그림 4-6〉 한국관광공사 홍보동영상 사례



자료 : 한국관광공사TV 유튜브채널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Ep.1 서울

- 다양한 참여자 프로그램 개발
  - 참여자 인증서, 행렬참여자클럽 운영, 후기 콘테스트 등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 4. 마케팅 강화 및 방문객 접근성 제고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축제에서의 마케팅은 주민중심형 축제에서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짐
  - 주민중심형 축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축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을 통해 축제를 촉진시킬 필요가 없으나 문화관광형의 경우 전국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이 중요해짐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문화원형의 복원 행사를 넘어 지역축제이자 관광 프로그램이므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문객 현황과 행사 현황에 대한 주요 특성 이해를 통하여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수립 필요
  - 오프라인 : 거주 지역, 유동인구, 주요유입경로를 중심으로 행사 당일까지 지속적인 홍보 유지
  - 온라인 : 뉴미디어와 SNS 집중 홍보 매체를 활용한 노출 강화 필요함
    - 세대별 선호 SNS와 매체별 속성을 반영한 SNS 타게팅 전략 활용을 통한 수용성과 접근성 증대

〈그림 4-7〉 세대별 선호 SNS 현황

국내 소셜 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221만	 493만	 440만	 502만	 544만명
2위	 191만	 386만	 319만	 298만	 297만명
3위	 86만	 178만	 268만	 266만	 177만명

※월 평균 이용자 수는 2020년 1분기(1~3월) 내 월별로 발생한 이용자 수의 산술평균값  
자료=DMC미디어

자료 : 조선비즈(2020.9.7.)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0514.html

## 2) 추진 내용

-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상시적인 홈페이지, SNS 계정, 유튜브 채널 등 운영
- 적극적·상시적인 온라인 이벤트 실시
  - 6개월 전, 1개월 전 등 시기별 이벤트 등

〈그림 4-8〉 SNS 사전 이벤트 사례



자료 : 렛츠락페스티벌 instagram.com/p/B1V7ZKyFOIf/ 및 그랜드민트페스티벌 instagram.com/p/CGmZHR0FD3b/

■ 디자인 문화상품 개발

〈그림 4-9〉 축제 디자인 문화상품 사례



자료 : 뷰티풀민트라이프 [instagram.com/p/Bw\\_2MiG1hPN/](https://www.instagram.com/p/Bw_2MiG1hPN/),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instagram.com/p/B7pXjLQIrl/](https://www.instagram.com/p/B7pXjLQIrl/)

■ 외국인 수용력 확대

- 외국어 홍보물 제작, 통역요원 배치 등

## 5. 축제의 첨단화 모색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컨택트(Contact) 시대에서 온라인 만남이 일상이 되는 온택트(Ontact) 시대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유택트(U-Tact) 시대로 변화
  - 미래학자들은 2020년을 전후로 ‘사물인터넷(IoT)’의 시대, 2030년을 전후로 ‘가상과 현실의 융합과 만물의 상호작용’ 시대, 2040년을 전후로 ‘인공지능의 특이점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
  - 기존 문화산업이 생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융합,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형 문화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시대임

〈그림 4-10〉 문화기술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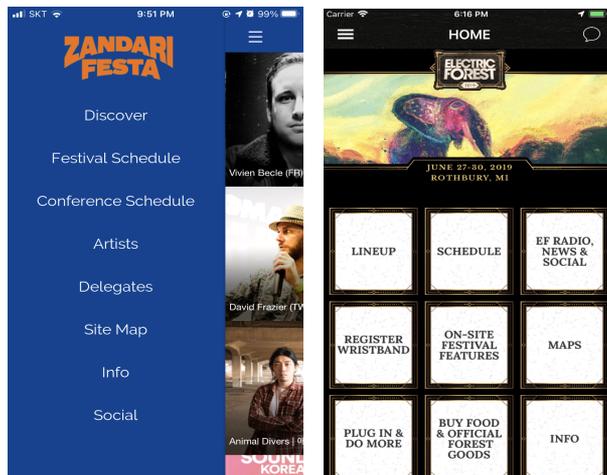
자료 : Agit-POSTECH-TechReview postechtechreview.wordpress.com/2017/12/30/포켓몬고가-뭐야-가상현실과-증강현실/, 연합뉴스(2020.9.30.) yna.co.kr/view/AKR20200930069500005

- 능형차 행렬은 일부구간만 관람이 가능한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능형차의 일부나 혹은 부대 프로그램들은 현대적인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창덕궁 출궁, 배다리 도강, 화성도착 등 특정 구간은 시민참여보다는 원형 재현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경로 중간에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 2) 추진 내용

- 축제 앱 개발 및 운영
  - 앱을 활용한 축제 홍보, 안내, 해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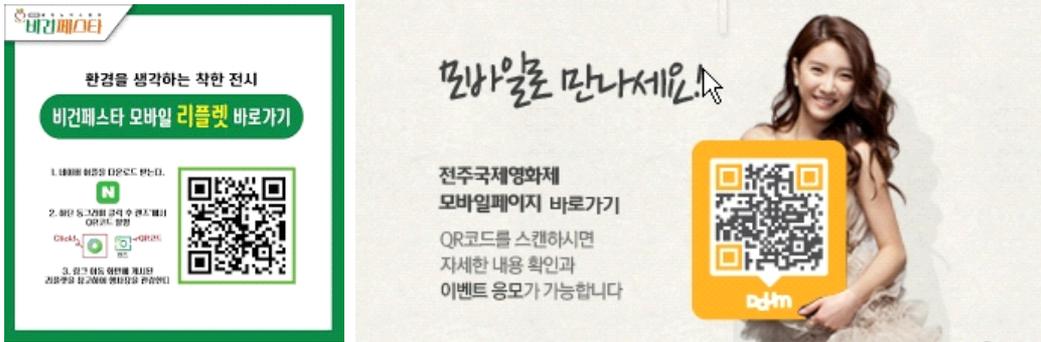
〈그림 4-11〉 축제 앱 사례



자료 : zandari festa mobile app, electric forest mobile app 화면 캡처

- 행차 주요지점에 QR코드를 활용하여 해설 및 정보 제공

〈그림 4-12〉 QR코드 활용 사례



자료 : 비건페스타 [instagram.com/p/Bzc1ro9nl52/](https://www.instagram.com/p/Bzc1ro9nl52/), ChangeON [changeon.org/qr코드-그게원데/](https://changeon.org/qr코드-그게원데/)

- 온라인 중계 확대
- 홀로그램, AR 콘텐츠와 결합한 능행차 관람 환경 제공

〈그림 4-13〉 홀로그램 활용 사례



자료 : SBS뉴스(2019.6.20.)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294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2944)

## 6. 지속성 및 운영안정성 확보

###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전통행사의 현대적 재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지속성임
  - 전통문화콘텐츠 행사는 특정일을 지정해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재현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행사 운영의 불안정성 극복 필요
  - 다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공동개최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은 개별 지자체의 상황 혹은 협의의 미진함에 의해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민간 단위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를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 요건 중 하나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행사이어야 함

## 2) 추진 내용

- 조직체계 정비
  -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중앙정부 참여 유도
    - 능행차 행사의 의미 공유 및 확대 : 국가 차원의 행사로 승격
    - 지자체들 간의 공동사업의 중심축 역할 : 소극적인 지자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컨트롤 타워 역할 상설 기구 운영 필요
    - 축제조직위원회 또는 행차추진단의 상설 사무국 구성
    - 민간인 전문가로 예술 감독과 실무진을 배치하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 출연 및 공무원 파견
  - 행차는 추진단(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각 지자체는 행차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 개최
- 개최시기 및 주기 정비
  - 장기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원화성문화제와는 별도의 축제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유효함
  - 시기 이동 : 10월에서 초봄으로
    - 10월은 퍼레이드형 행사를 하기에는 기온이 높아 관람의 어려움을 겪음
    - 또한 10월에는 국내 축제의 80%가 집중되어 있어 능행차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음
    - 을묘년 원행 시기가 음력 윤2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고증에 충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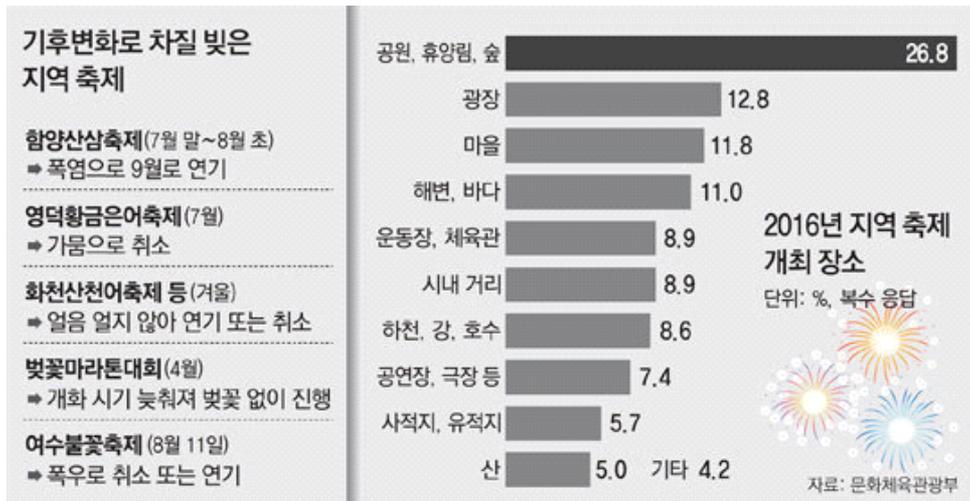
- 개최 주기 : 매년 개최하되 규모나 형식을 바꿔가면서 추진
  - 예) 실질적인 전 구간 재현은 4~5년에 1회, 나머지는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
  - 연례행사이어야 지속성 및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음
- 운영인력의 전문화 및 장기 고용
  - 실무 운영인력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음
- 행사 인력 및 마필 공급의 안정화
  - 참여 부대와의 MOU 등을 통해 행렬 인력을 안정화하도록 함

## 7. 비상상황 대응전략 마련

### 1) 추진배경 및 현황

- 태풍,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 발생
  - 2018년 태풍으로 서울 강북구간은 취소되고 오후에 진행되는 강남구간만 시행
  - 2019년 태풍으로 서울 배다리구간 취소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경기도 구간 전면 취소
    - 수원 시내 구간만 시민퍼레이드로 대체
  -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 전체 2021년 4월로 연기

〈그림 4-14〉 기후변화로 차질 빚은 지역축제



자료 : 동아일보(2017.8.16.) [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16/85838097/1?comm](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16/85838097/1?comm)

## ■ 포스트코로나 대응

- 향후에도 감염병, 기상조건, 사회적 사건 등 예기치 않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축제 위기상황 사례

#### ■ 세월호 사건과 축제취소

- 2014년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제주행 국내여객선 세월호가 전복한 사건으로 이후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취소, 단체여행 감소
- 2014년도 계획된 지역축제는 총 555건이고, 취소·연기건수는 총 98건(취소건수 67건, 연기건수 3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축제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관광소비 감소액은 약 1천 1백억 원(118,497,652,560원)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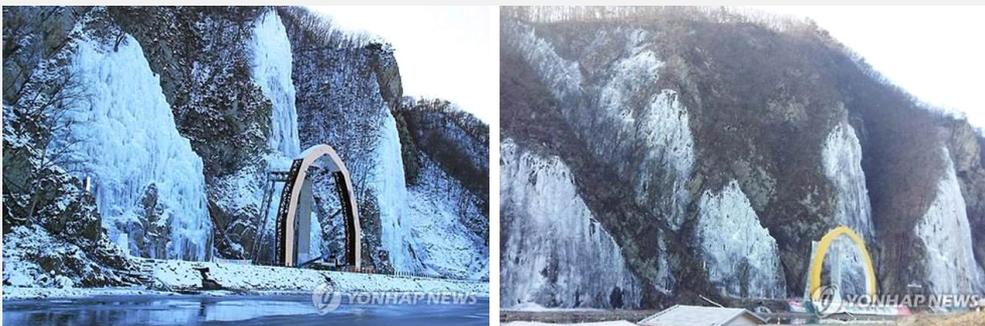
####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취소

-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지역축제는 물론 국제행사 등이 취소·연기
- 메르스 확산시기인 6월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80% 감소

#### ■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온과 겨울축제 위기

- 열파현상 증가, 겨울철 기간의 단축, 강수일수 감소,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발생, 가뭄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전반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계절특성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짐
-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2년 연속 취소하였으며, 홍천군의 홍천강 공공축제, 경기 가평군의 자라섬 쌍쌍 겨울축제, 전북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경북 안동 암산얼음축제, 강화도 빙어축제, 충북 영동군의 초강천 인공빙벽의 국제빙벽대회 등이 개최 취소 또는 연기됨

〈그림 4-15〉 날씨로 인해 5년간 열리지 못하다 폐지된 영동군 빙벽장



자료 : 연합뉴스(2017.12.20.) [www.yna.co.kr/view/AKR20171220001700064](http://www.yna.co.kr/view/AKR20171220001700064),  
 연합뉴스(2015.12.30.) [www.yna.co.kr/view/AKR20151230080200064](http://www.yna.co.kr/view/AKR20151230080200064)

## 2) 추진 내용

- VR 콘텐츠나 홀로그램 활용한 대체
  - 온-오프의 결합 : 스마트 체험관으로 운영
  - 가상공간 행사 개최 : 모바일·온라인으로 가상체험

〈그림 4-16〉 게임 속 세상에서 진행한 결혼식



자료 : 뉴스웍스(2020.7.26.) [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94](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94)

- 상황에 맞는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 구간 축소 추진 등
-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체계 마련

## | 참고문헌 |

- 김창수 · 박미수 · 이희성 · 박종진 · 노경희 · 허성란 · 신현식 · 박준범 · 하진영(2016), 지역축제, 대왕사
- 수원문화재단(2016a),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백서
- \_\_\_\_\_ (2016b),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보고서
- \_\_\_\_\_ (2016c),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 백서
- \_\_\_\_\_ (2017),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_\_\_\_\_ (2018),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_\_\_\_\_ (2019),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 수원시(2017),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종합평가회 자료집
- \_\_\_\_\_ (2018a),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종합평가서
- \_\_\_\_\_ (2018b),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 \_\_\_\_\_ (2018c), 종합평가 보고서
- 수원시·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수원문화재단(2017), 수원시민 역사 머금은 문화의 문을 열다
- 수원시정연구원(2015),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수원시·수원문화재단(2018), 역사를 만나다 미래를 품다
- \_\_\_\_\_ (2019), 역사를 빚어낸 수원의 길 세계로 펼쳐간다
-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andmintfestival/>
- 렛츠락페스티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tsrockfe/>
- 뷰티풀민트라이프 인스타그램 <https://www.facebook.com/BeautifulMintLife>
- 비건페스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eganfesta/>
- 수원화성문화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festival/>
- 한국관광공사TV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B\\_X7n0AaLqA&t=10s](https://www.youtube.com/watch?v=B_X7n0AaLqA&t=10s)
-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mzpeacetrain/>
- “QR코드? 그게 뭐데!?”, ChangeON, <http://changeon.org/>
- “포켓몬고가 뭐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Agit-POSTECH-TechReview, <https://postechtechreview.wordpress.com/>

뉴스웍스(2020.7.26.) “결혼도, 축제도, 전시도”... 게임 속 세상, 언택트시대 ‘작은 사회’ 변신“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94>

SBS뉴스(2019. 6.10) “동물 없는 동물 서커스가 있다?... 빛으로만 채운 무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294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2944)

연합뉴스(2020.9.30.) “안방 뒤흔든 가황 카리스마... KBS 나훈아 콘서트 시청률 14.4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30069500005>

연합뉴스(2017.12.20.) “영동 빙벽대회 5년 연속 무산, 예산만 낭비...폐지 목소리”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0001700064>

연합뉴스(2015.12.30.) “‘얼지 않는 영동 인공빙벽장’ 사상 첫 개장 무기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51230080200064>

동아일보(2017.8.16.) “하늘만 쳐다보다 망친 지역축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816/85838097/1?comm>

조선비즈(2020.9.7.) “한국 SNS 사용률 세계 3위.. 가장 많이 쓰는 건 ‘네이버 밴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051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0514.html)

## | 부 록 |

## 1. 시민조사 설문지&lt;정조대왕 능행차 관람객 의견 조사&gt;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관람객 의견 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대상자: 만 19세 이상)

SQ3. 귀하의 거주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지도 2개 삽입]

SQ3-1.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_\_\_\_\_년 \_\_\_\_\_개월 거주

SQ4. 귀하의 혼인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미혼    ② 기혼

SQ4-1.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음\_\_\_\_\_명    ② 없음

SQ5. 귀하의 가족관계를 기입해주세요. (※ 현재 함께 사는 가족만 기입)

총 \_\_\_\_\_명 (본인 포함)

Q. 귀하는 다음 행사 중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참여 관람한 행사가 있으십니까?

(중복 가능)

- ① 정조대왕 능행차  
 ② 수원화성문화제 ⇨ 설문 대상자 탈락 (정조대왕 능행차와 중복일시 채택)  
 ③ 수원문화재 야행 ⇨ 설문 대상자탈락 (정조대왕 능행차와 중복일시 채택)  
 ④ 수원 연극 축제 ⇨ 설문 대상자 탈락(정조대왕 능행차와 중복일시 채택)  
 ⑤ 없다 ⇨ 설문 대상자 탈락

Q0. 귀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몇 년도에 보셨나요?(중복응답가능)

-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④ 2019년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수원 전 구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축제 개선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본 설문에 의한 결과 통계는 **통계법 제3조**에 근거한 일반통계이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 34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응답자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1. 2016년도에 관람하신 장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금천구 지역    ② 안양시 지역    ③ 의왕시 지역    ④ 군포시 지역
- ⑤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    ⑥ 수원종합운동장~ 장안문
- ⑦ 장안문~행궁광장    ⑧ 행궁광장~연무대    ⑨ 화성시 용릉

**1-2. 2017년도에 관람하신 장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금천구 지역    ② 안양시 지역    ③ 의왕시 지역    ④ 군포시 지역
- ⑤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    ⑥ 수원종합운동장~ 장안문
- ⑦ 장안문~행궁광장    ⑧ 행궁광장~연무대    ⑨ 화성시 용릉

**1-3. 2018년도에 관람하신 장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금천구 지역    ② 안양시 지역    ③ 의왕시 지역    ④ 군포시 지역
- ⑤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    ⑥ 수원종합운동장~ 장안문
- ⑦ 장안문~행궁광장    ⑧ 행궁광장~연무대    ⑨ 화성시 용릉

**1-4. 2019년도에 관람하신 장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금천구 지역    ② 안양시 지역    ③ 의왕시 지역    ④ 군포시 지역
- ⑤ 노송지대~수원종합운동장    ⑥ 수원종합운동장~ 장안문
- ⑦ 장안문~행궁광장    ⑧ 행궁광장~연무대    ⑨ 화성시 용릉



5. 향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2016년 이전처럼 수원시 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만 진행하는 것과 현재처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까지 진행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 ① 수원시 구간만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
- ② 전 구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

5-1. 2016년 이전처럼 수원시 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만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원시만의 특별한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아서
- ② 수원시만 진행할 경우 행사의 내용과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 ③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것 같아서
- ④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 ⑤ 교통통제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아서
- ⑥ 기타 ( )

⇒ **응답 후 6번으로 이동**

5-2.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 ② 관광성으로 보았을 때 좋을 것 같아서
- ③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 ④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 ⑤ 교육, 문화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 ⑥ 기타 ( )

6.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전구간 (서울 창덕궁-용릉) 재현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격년제나 3,4년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현재처럼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 매년 진행하는 것이 낫음 ⇒ **6-1번 문항으로**
- ② 격년제나 3년제 혹은 4년제를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 진행하는 것이 낫음 ⇒ **6-2번 문항으로**
- ③ 매년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진행하는 것이나 격년제나 3,4년제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 모두 상관없음 ⇒ **7번 문항으로**
- ④ 기타 ( ) ⇒ **7번 문항으로**

**6-1.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전구간 (서울 창덕궁-용릉) 재현을 매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행사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 ② 역사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 ③ 수원을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 ④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기에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 ⑤ 기타( )

☞ **응답 후 7번 문항으로**

**6-2.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전구간 (서울 창덕궁-용릉) 재현을 격년제 혹은 3,4년제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매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가끔 보는 것이 새로운 것 같아서
- ② 행사의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 ③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 ④ 능행차를 안하는 연도에는 다른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 ⑤ 기타 ( )

**7. 현재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 재현을 10월 수원화성문화제 마지막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전구간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면서 수원시만의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프로그램의 일부로 두는 것은 능행차 재현의 취지나 운영에 부적합할 수 있어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축제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비록 전구간 행렬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나음

☞ **7-1번 문항으로**

- ② 전구간 행렬이 되었으므로 수원화성문화제와는 독립적인 행사로서 추진하는 것이 나음

☞ **7-2번 문항으로**

**7-1.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재현도 현재처럼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개최되는 것이 행사 규모가 클 것 같아서
- ② 행사기간 중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볼거리나 놀거리가 다양할 것 같아서
- ③ 수원지역 관람객이나 타 지역 관람객들이 더 많이 보러 올 것 같아서
- ④ 전통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해왔으므로
- ⑤ 기타 ( )

☞ **응답 후 8번으로**

**7-2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재현을 수원화성문화제에서 분리했을 경우 개최시기를 언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① 전통적으로 개최해왔던 가을(9~10월경)에 개최 **⇒7-2-1번으로**
- ② 고중에 충실하게 을묘년 원행이 있었던 봄(3~4월경)에 개최 **⇒7-2-2번으로**

**7-2-1.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재현을 가을(9~10월경)에 개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전통적으로 가을에 개최해 왔으므로
- ②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함으로써 보다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므로
- ③ 봄에는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겹치므로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으므로
- ④ 봄보다는 야외행사 개최하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므로(봄 미세먼지 등)
- ⑤ 기타 ( )

**⇒ 응답 후 8번으로**

**7-2-2.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 재현을 봄(3~4월경)에 개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고중에 충실하게 전구간 재현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시기도 그에 맞춰 개최하는 게 나을 것 같으므로
- ② 능행차는 봄, 수원화성문화제는 가을의 양대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으므로
- ③ 큰 행사나 축제가 한 시기에 몰려있기 보다 분산되어야 집객이나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 ④ 가을보다는 봄이 야외행사 개최하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어서(가을 태풍 등)
- ⑤ 기타 ( )

**8.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등) 재현에서 보다 강조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① 고중과 원형에 충실한 능행차 행렬
- ②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백성상연, 수원유수 정조맞이와 같은 전통재현 퍼포먼스
- ③ 능행차 행렬 뒤에 이어지는 화려한 시민퍼레이드
- ④ 풍물, 북, 다양한 공연 및 플래시몹 행사와 같은 공연볼거리
- ⑤ 의상과 분장을 하고 능행차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 ⑥ 기타( )

**9.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재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시민들의 협조(교통통제 및 안전유의 등)
- ②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③ 경기도 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등)의 협력체계 구축
- ④ 공동 홈페이지의 상시 운영
- ⑤ 능행차 행렬의 온라인 중계 채널 다양화
- ⑥ 기타( )

**10.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전통문화 관광축제로의 대표성
- ② 최대의 역사 퍼레이드 축제로서의 상징성
- ③ 서울시-경기도와 연계하는 축제로서의 연계와 협력의 가치성
- ④ 다양한 참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소통축제로서의 화합성
- ⑤ 관광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가치 발굴
- ⑥ 기타(구체적으로: )

**11. 정조대왕 능행차 전구간(서울 창덕궁-용릉)재현을 관람하신 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능행차의 역사복원성
- ② 능행차 출연진 역량
- ③ 관객과의 공감, 소통
- ④ 홍보 및 정보 제공
- ⑤ 행사장 접근성
- ⑥ 관람 환경과 서비스
- ⑦ 기타(구체적으로: )

**12.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과 각종 프로그램을 관람 혹은 참여하셨다면 어떤 점이 즐거우셨는지 혹은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또한 조금 더 나은 행사를 위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2. 설문조사 통계표<sup>9)</sup>

[표1] 응답자 기본정보

(단위: 명, %)

		사례수(명)	비율(%)
전체		(220)	100
성별	남자	(84)	38.2
	여자	(136)	61.8
연령	만19-29세	(68)	30.9
	만30-39세	(68)	30.9
	만40-49세	(54)	24.5
	만50-59세	(21)	9.5
	만60세 이상	(9)	4.1
혼인여부	미혼	(120)	54.5
	기혼	(110)	45.5
자녀 (N=100)	유	(83)	83.0
	무	(17)	17.0

9) 선택응답 및 중복응답 문항이 있어 문항별 전체 사례수가 상이하게 나타남

[표2] 2016년~2019년 참여 관람한 행사(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명)	정조대왕 능행차	수원화성 문화제	수원문화 재 야행	수원 연극 축제	비율(%)
전체		(220)	39.8	30.6	19.7	9.9	100.0
성별	남자	(84)	33.4	25.7	16.6	8.4	38.2
	여자	(136)	54.1	41.6	26.8	13.5	61.8
연령	만19-29세	(68)	27.1	20.8	13.4	6.8	30.9
	만30-39세	(68)	27.1	20.8	13.4	6.8	30.9
	만40-49세	(54)	21.5	16.5	10.6	5.4	24.5
	만50-59세	(21)	8.4	6.4	4.1	2.1	9.5
	만60세 이상	(9)	3.6	2.8	1.8	0.9	4.1
혼인여부	미혼	(120)	47.7	36.7	23.7	11.9	54.5
	기혼	(110)	39.8	30.6	19.7	10.0	45.5
자녀	유	(83)	33.0	25.4	16.4	8.3	83
	무	(17)	6.8	5.2	3.4	1.7	17

[표3] 2016년~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 연도(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율(%)
전체		(220)	23.7	29.0	31.5	15.9	100.0
성별	남자	(84)	19.9	24.3	26.5	13.3	38.2
	여자	(136)	32.2	39.4	42.8	21.6	61.8
연령	만19-29세	(68)	16.1	19.7	21.4	10.8	30.9
	만30-39세	(68)	16.1	19.7	21.4	10.8	30.9
	만40-49세	(54)	12.8	15.6	17.0	8.6	24.5
	만50-59세	(21)	5.0	6.1	6.6	3.3	9.5
	만60세 이상	(9)	2.1	2.6	2.8	1.4	4.1
혼인여부	미혼	(120)	28.4	34.8	37.8	19.0	54.5
	기혼	(110)	26.1	31.9	34.6	17.5	45.5
자녀	유	(83)	19.7	24.0	26.1	13.2	83
	무	(17)	4.0	4.9	5.4	2.7	17

[표4] 2016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장소(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 (명)	금천구 지역	안양시 지역	의왕시 지역	군포시 지역	노송지대 - 수원종합 운동장	수원종합 운동장 - 장안문	장안문 - 행궁광장	행궁광장 - 연무대	화성시 응릉	비율(%)
전체		(220)	0.6	0.6	1.1	0.6	11.0	20.4	37.6	25.4	2.8	100.0
성별	남자	(84)	0.5	0.5	0.9	0.5	9.3	17.2	31.6	21.4	2.3	38.2
	여자	(136)	0.8	0.8	1.5	0.8	15.0	27.8	51.1	34.6	3.8	61.8
연령	만19~29세	(68)	0.4	0.4	0.8	0.4	7.5	13.9	25.6	17.3	1.9	30.9
	만30~39세	(68)	0.4	0.4	0.8	0.4	7.5	13.9	25.6	17.3	1.9	30.9
	만40~49세	(54)	0.3	0.3	0.6	0.3	6.0	11.0	20.3	13.7	1.5	24.5
	만50~59세	(21)	0.1	0.1	0.2	0.1	2.3	4.3	7.9	5.3	0.6	9.5
	만60세 이상	(9)	0.1	0.1	0.1	0.1	1.0	1.8	3.4	2.3	0.3	4.1
혼인여부	미혼	(120)	0.7	0.7	1.3	0.7	13.3	24.5	45.1	30.5	3.3	54.5
	기혼	(110)	0.6	0.6	1.2	0.6	12.2	22.5	41.3	28.0	3.0	45.5
자녀	유	(83)	0.5	0.5	0.9	0.5	9.2	17.0	31.2	21.1	2.3	83
	무	(17)	0.1	0.1	0.2	0.1	1.9	3.5	6.4	4.3	0.5	17

[표5] 2017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장소(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 (명)	금천구 지역	안양시 지역	의왕시 지역	군포시 지역	노송지대 - 수원종합 운동장	수원종합 운동장 - 장안문	장안문 - 행궁광장	행궁광장 - 연무대	화성시 응릉	비율(%)
전체		(220)	0.5	0.9	0.9	0.5	9.4	18.9	37.7	25.0	6.1	100.0
성별	남자	(84)	0.4	0.8	0.8	0.4	7.9	15.9	31.7	21.0	5.2	38.2
	여자	(136)	0.6	1.3	1.3	0.6	12.8	25.7	51.3	34.0	8.3	61.8
연령	만19-29세	(68)	0.3	0.6	0.6	0.3	6.4	12.8	25.7	17.0	4.2	30.9
	만30-39세	(68)	0.3	0.6	0.6	0.3	6.4	12.8	25.7	17.0	4.2	30.9
	만40-49세	(54)	0.3	0.5	0.5	0.3	5.1	10.2	20.4	13.5	3.3	24.5
	만50-59세	(21)	0.1	0.2	0.2	0.1	2.0	4.0	7.9	5.3	1.3	9.5
	만60세 이상	(9)	0.0	0.1	0.1	0.0	0.9	1.7	3.4	2.3	0.6	4.1
혼인여부	미혼	(120)	0.6	1.1	1.1	0.6	11.3	22.6	45.3	30.0	7.4	54.5
	기혼	(110)	0.5	1.0	1.0	0.5	10.4	20.8	41.5	27.5	6.8	45.5
자녀	유	(83)	0.4	0.8	0.8	0.4	7.8	15.7	31.3	20.8	5.1	83
	무	(17)	0.1	0.2	0.2	0.1	1.6	3.2	6.4	4.3	1.0	17

[표6]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장소(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 (명)	금천구 지역	안양시 지역	의왕시 지역	군포시 지역	노송지대 - 수원종합 운동장	수원종합 운동장 - 장안문	장안문 - 행궁광장	행궁광장 - 연무대	화성시 용릉	비율(%)
전체		(220)	0.4	1.3	1.3	0.9	9.9	19.8	40.1	23.7	2.6	100.0
성별	남자	(84)	0.4	1.1	1.1	0.7	8.3	16.7	33.7	19.9	2.2	38.2
	여자	(136)	0.6	1.8	1.8	1.2	13.5	27.0	54.5	32.2	3.5	61.8
연령	만19-29세	(68)	0.3	0.9	0.9	0.6	6.7	13.5	27.3	16.1	1.8	30.9
	만30-39세	(68)	0.3	0.9	0.9	0.6	6.7	13.5	27.3	16.1	1.8	30.9
	만40-49세	(54)	0.2	0.7	0.7	0.5	5.4	10.7	21.7	12.8	1.4	24.5
	만50-59세	(21)	0.1	0.3	0.3	0.2	2.1	4.2	8.4	5.0	0.5	9.5
	만60세 이상	(9)	0.0	0.1	0.1	0.1	0.9	1.8	3.6	2.1	0.2	4.1
혼인여부	미혼	(120)	0.5	1.6	1.6	1.0	11.9	23.8	48.1	28.5	3.1	54.5
	기혼	(110)	0.5	1.4	1.4	1.0	10.9	21.8	44.1	26.1	2.8	45.5
자녀	유	(83)	0.4	1.1	1.1	0.7	8.2	16.5	33.3	19.7	2.2	83
	무	(17)	0.1	0.2	0.2	0.2	1.7	3.4	6.8	4.0	0.4	17

[표7] 2019년 정조대왕 능행차 관람장소(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 (명)	금천구 지역	안양시 지역	의왕시 지역	군포시 지역	노승지대 - 수원종합 운동장	수원종합 운동장 - 장안문	장안문 - 행궁광장	행궁광장 - 연무대	화성시 용릉	비율(%)
전체		(220)	0.9	2.6	0.9	0.9	6.9	24.1	37.1	25.9	0.9	100.0
성별	남자	(84)	0.7	2.2	0.7	0.7	5.8	20.3	31.1	21.7	0.7	38.2
	여자	(136)	1.2	3.5	1.2	1.2	9.4	32.8	50.4	35.2	1.2	61.8
연령	만19-29세	(68)	0.6	1.8	0.6	0.6	4.7	16.4	25.2	17.6	0.6	30.9
	만30-39세	(68)	0.6	1.8	0.6	0.6	4.7	16.4	25.2	17.6	0.6	30.9
	만40-49세	(54)	0.5	1.4	0.5	0.5	3.7	13.0	20.0	14.0	0.5	24.5
	만50-59세	(21)	0.2	0.5	0.2	0.2	1.5	5.1	7.8	5.4	0.2	9.5
	만60세 이상	(9)	0.1	0.2	0.1	0.1	0.6	2.2	3.3	2.3	0.1	4.1
혼인여부	미혼	(120)	1.0	3.1	1.0	1.0	8.3	29.0	44.5	31.0	1.0	54.5
	기혼	(110)	1.0	2.8	1.0	1.0	7.6	26.6	40.8	28.5	1.0	45.5
자녀	유	(83)	0.7	2.2	0.7	0.7	5.7	20.0	30.8	21.5	0.7	83
	무	(17)	0.2	0.4	0.2	0.2	1.2	4.1	6.3	4.4	0.2	17

[표8]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보게 된 경로

(단위: 명, %)

		사례수(명)	광고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역사문화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관람 경험이 있는 지인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지인의 추천으로	기타	비율(%)
전체		(220)	34.3	23.0	12.0	12.6	10.4	7.8	100.0
성별	남자	(84)	28.8	19.3	10.1	10.6	8.7	6.5	38.2
	여자	(136)	46.7	31.3	16.3	17.2	14.1	10.6	61.8
연령	만19-29세	(68)	23.3	15.6	8.1	8.6	7.0	5.3	30.9
	만30-39세	(68)	23.3	15.6	8.1	8.6	7.0	5.3	30.9
	만40-49세	(54)	18.5	12.4	6.5	6.8	5.6	4.2	24.5
	만50-59세	(21)	7.2	4.8	2.5	2.7	2.2	1.6	9.5
	만60세 이상	(9)	3.1	2.1	1.1	1.1	0.9	0.7	4.1
혼인여부	미혼	(120)	41.2	27.6	14.4	15.2	12.4	9.3	54.5
	기혼	(110)	37.7	25.3	13.2	13.9	11.4	8.5	45.5
자녀	유	(83)	28.5	19.1	9.9	10.5	8.6	6.5	83
	무	(17)	5.8	3.9	2.0	2.2	1.8	1.3	17

[표9]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보게 된 경로(기타의견)

순번	기타의견
1	가까워서
2	간 날이 장날
3	거주지역이라서
4	매년 거주지역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라서
5	수원에 사니까 당연히
6	어쩌다보니
7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8	우연히 지나가다가
9	인근지역거주
10	지나가다가
11	지나가다가 우연히
12	지나가다가 행사를 하고 있어서
13	지나가다가봄
14	지역의 오래된 축제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이 있음
15	지역행사니깐
16	집 앞으로 지나가서
17	집앞에서 하는 행사라서
18	집앞이라
19	집앞이라서
20	학교 봉사활동
21	행사일인줄 모르고 방문했다가
22	행사참여 단체 주관

[표10] 정조대왕 능행차를 알게 된 경로(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명)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인터넷·스마트폰 등 온라인매체	신문사·잡지기사 등 인쇄매체	리플릿, 현수막 등 행사홍보물	가족·친구 등 주변 지인 추천	기타	비율(%)
전체		(220)	8.1	18.4	6.9	39.7	24.4	2.5	100.0
성별	남자	(84)	6.8	15.5	5.8	33.3	20.5	2.1	38.2
	여자	(136)	11.1	25.1	9.4	54.0	33.2	3.4	61.8
연령	만19-29세	(68)	5.5	12.5	4.7	27.0	16.6	1.7	30.9
	만30-39세	(68)	5.5	12.5	4.7	27.0	16.6	1.7	30.9
	만40-49세	(54)	4.4	10.0	3.7	21.4	13.2	1.4	24.5
	만50-59세	(21)	1.7	3.9	1.4	8.3	5.1	0.5	9.5
	만60세 이상	(9)	0.7	1.7	0.6	3.6	2.2	0.2	4.1
혼인여부	미혼	(120)	9.8	22.1	8.3	47.6	29.3	3.0	54.5
	기혼	(110)	8.9	20.3	7.6	43.7	26.8	2.8	45.5
자녀	유	(83)	6.7	15.3	5.7	32.9	20.2	2.1	83
	무	(17)	1.4	3.1	1.2	6.8	4.1	0.4	17

[표11] 정조대왕 능행차를 알게 된 경로(기타)

순번	기타의견
1	거주지라서
2	몰랐음
3	수원시 거주하기에 당연히
4	수원시청홈페이지
5	원래 하는 시기를 알고있음
6	전 년도에 행사하는 걸 우연히 보고
7	지나가다가 우연히
8	행사 주관

[표12] 2016년 이전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관람여부

(단위: 명, %)

		사례수(명)	있다	없다	비율(%)
전체		(220)	49.5	50.5	100.0
성별	남자	(84)	41.6	42.4	38.2
	여자	(136)	67.4	68.6	61.8
연령	만19~29세	(68)	33.7	34.3	30.9
	만30~39세	(68)	33.7	34.3	30.9
	만40~49세	(54)	26.8	27.3	24.5
	만50~59세	(21)	10.4	10.6	9.5
	만60세 이상	(9)	4.5	4.5	4.1
혼인여부	미혼	(120)	59.5	60.6	54.5
	기혼	(110)	54.5	55.5	45.5
자녀	유	(83)	41.1	41.9	83
	무	(17)	8.4	8.6	17

[표13] 2016년 이전에 수원화성문화제 프로그램의 일부행사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로 치러질 때와 2016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의 별도 행사로 서울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로 치러질 때의 차이 여부

(단위: 명, %)

		사례수(명)	있다	없다	비율(%)
전체		(220)	48.6	51.4	100.0
성별	남자	(84)	40.8	43.2	38.2
	여자	(136)	66.1	69.9	61.8
연령	만19-29세	(68)	33.1	34.9	30.9
	만30-39세	(68)	33.1	34.9	30.9
	만40-49세	(54)	26.3	27.7	24.5
	만50-59세	(21)	10.2	10.8	9.5
	만60세 이상	(9)	4.4	4.6	4.1
혼인여부	미혼	(120)	58.4	61.7	54.5
	기혼	(110)	53.5	56.5	45.5
자녀	유	(83)	40.4	42.6	83
	무	(17)	8.3	8.7	17

[표14] 2016년도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느낀 차이점

(단위: 명, %)

		사례수(명)	행사 규모의 차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매스컴 보도의 차이	비율(%)
전체		(220)	64.2	26.4	9.4	100.0
성별	남자	(84)	53.9	22.2	7.9	38.2
	여자	(136)	87.3	35.9	12.8	61.8
연령	만19-29세	(68)	43.6	18.0	6.4	30.9
	만30-39세	(68)	43.6	18.0	6.4	30.9
	만40-49세	(54)	34.6	14.3	5.1	24.5
	만50-59세	(21)	13.5	5.6	2.0	9.5
	만60세 이상	(9)	5.8	2.4	0.9	4.1
혼인여부	미혼	(120)	77.0	31.7	11.3	54.5
	기혼	(110)	70.6	29.1	10.4	45.5
자녀	유	(83)	53.3	21.9	7.8	83
	무	(17)	10.9	4.5	1.6	17

[표15] 향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을 2016년 이전처럼  
수원시 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만 진행하는 것과  
현재처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까지 진행 하는 것 중 선호도

(단위: 명, %)

		사례수(명)	수원시 구간만 진행하는 것이 더 낮다.	전 구간 진행하는 것이 더 낮다	비율(%)
전체		(220)	48.2	51.8	100.0
성별	남자	(84)	40.5	43.5	38.2
	여자	(136)	65.5	70.5	61.8
연령	만19-29세	(68)	32.8	35.2	30.9
	만30-39세	(68)	32.8	35.2	30.9
	만40-49세	(54)	26.0	28.0	24.5
	만50-59세	(21)	10.1	10.9	9.5
	만60세 이상	(9)	4.3	4.7	4.1
혼인여부	미혼	(120)	57.8	62.2	54.5
	기혼	(110)	53.0	57.0	45.5
자녀	유	(83)	40.0	43.0	83
	무	(17)	8.2	8.8	17

[표16] 수원시 구간(종합운동장-화성행궁)만 진행되는 것이 더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수원시만의 특별한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아서	수원시만 진행할 경우 행사의 내용과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것 같아서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통통제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아서	기타	비율(%)
전체		(220)	37.7	25.5	11.3	7.5	17.0	0.9	100.0
성별	남자	(84)	31.7	21.4	9.5	6.3	14.3	0.8	38.2
	여자	(136)	51.3	34.6	15.4	10.3	23.1	1.3	61.8
연령	만19-29세	(68)	25.7	17.3	7.7	5.1	11.6	0.6	30.9
	만30-39세	(68)	25.7	17.3	7.7	5.1	11.6	0.6	30.9
	만40-49세	(54)	20.4	13.8	6.1	4.1	9.2	0.5	24.5
	만50-59세	(21)	7.9	5.4	2.4	1.6	3.6	0.2	9.5
	만60세 이상	(9)	3.4	2.3	1.0	0.7	1.5	0.1	4.1
혼인여부	미혼	(120)	45.3	30.6	13.6	9.1	20.4	1.1	54.5
	기혼	(110)	41.5	28.0	12.5	8.3	18.7	1.0	45.5
자녀	유	(83)	31.3	21.1	9.4	6.3	14.1	0.8	83
	무	(17)	6.4	4.3	1.9	1.3	2.9	0.2	17

[표17]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관광성으로 보았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지역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교육, 문화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기타	비율(%)
전체		(220)	54.4	12.3	13.2	14.9	5.3	0.9	100.0
성별	남자	(84)	45.7	10.3	11.1	12.5	4.4	0.8	38.2
	여자	(136)	74.0	16.7	17.9	20.3	7.2	1.3	61.8
연령	만19-29세	(68)	37.0	8.4	9.0	10.1	3.6	0.6	30.9
	만30-39세	(68)	37.0	8.4	9.0	10.1	3.6	0.6	30.9
	만40-49세	(54)	29.4	6.6	7.1	8.1	2.8	0.5	24.5
	만50-59세	(21)	11.4	2.6	2.8	3.1	1.1	0.2	9.5
	만60세 이상	(9)	4.9	1.1	1.2	1.3	0.5	0.1	4.1
혼인여부	미혼	(120)	65.3	14.7	15.8	17.9	6.3	1.1	54.5
	기혼	(110)	59.8	13.5	14.5	16.4	5.8	1.0	45.5
자녀	유	(83)	45.1	10.2	10.9	12.4	4.4	0.8	83
	무	(17)	9.3	2.1	2.2	2.5	0.9	0.2	17

[표18]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격년제나 3,4년제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사례수(명)	현재처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 매년 진행하는 것이 나옴	격년제나 3년제 혹은 4년제를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 진행하는 것이 나옴	매년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진행하는 것이나 격년제나 3,4년제 전 구간(서울 창덕궁-용릉) 모두 상관없음	기타	비율(%)
전체		(220)	32.3	39.5	26.8	1.4	100.0
성별	남자	(84)	27.1	33.2	22.5	1.2	38.2
	여자	(136)	43.9	53.8	36.5	1.9	61.8
연령	만19-29세	(68)	22.0	26.9	18.2	0.9	30.9
	만30-39세	(68)	22.0	26.9	18.2	0.9	30.9
	만40-49세	(54)	17.4	21.4	14.5	0.7	24.5
	만50-59세	(21)	6.8	8.3	5.6	0.3	9.5
	만60세 이상	(9)	2.9	3.6	2.4	0.1	4.1
혼인여부	미혼	(120)	38.7	47.5	32.2	1.6	54.5
	기혼	(110)	35.5	43.5	29.5	1.5	45.5
자녀	유	(83)	26.8	32.8	22.3	1.1	83
	무	(17)	5.5	6.7	4.6	0.2	17

[표19]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전 구간을 매년 진행하는 것이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행사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수원을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기에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비율(%)
전체		(220)	36.6	31.0	26.8	5.6	100.0
성별	남자	(84)	30.8	26.0	22.5	4.7	38.2
	여자	(136)	49.8	42.1	36.4	7.7	61.8
연령	만19-29세	(68)	24.9	21.1	18.2	3.8	30.9
	만30-39세	(68)	24.9	21.1	18.2	3.8	30.9
	만40-49세	(54)	19.8	16.7	14.5	3.0	24.5
	만50-59세	(21)	7.7	6.5	5.6	1.2	9.5
	만60세 이상	(9)	3.3	2.8	2.4	0.5	4.1
혼인여부	미혼	(120)	43.9	37.2	32.1	6.8	54.5
	기혼	(110)	40.3	34.1	29.4	6.2	45.5
자녀	유	(83)	30.4	25.7	22.2	4.7	83
	무	(17)	6.2	5.3	4.6	1.0	17

[표20] 전 구간 재현을 격년제 혹은 3,4년제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매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가끔 보는 것이 새로운 것 같아서	행사의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능행차를 안하는 연도에는 다른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비율(%)
전체		(220)	23.0	40.2	29.9	6.9	100.0
성별	남자	(84)	19.3	33.8	25.1	5.8	38.2
	여자	(136)	31.3	54.7	40.6	9.4	61.8
연령	만19-29세	(68)	15.6	27.4	20.3	4.7	30.9
	만30-39세	(68)	15.6	27.4	20.3	4.7	30.9
	만40-49세	(54)	12.4	21.7	16.1	3.7	24.5
	만50-59세	(21)	4.8	8.5	6.3	1.5	9.5
	만60세 이상	(9)	2.1	3.6	2.7	0.6	4.1
혼인여부	미혼	(120)	27.6	48.3	35.9	8.3	54.5
	기혼	(110)	25.3	44.3	32.9	7.6	45.5
자녀	유	(83)	19.1	33.4	24.8	5.7	83
	무	(17)	3.9	6.8	5.1	1.2	17

[표21]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축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사례수(명)	비록 전 구간 행렬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원화성문화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나옴	전 구간 행렬이 되었으므로 수원화성문화제와는 독립적인 행사로서 추진하는 것이 나옴	비율(%)
전체		(220)	71.4	28.6	100.0
성별	남자	(84)	60.0	24.1	38.2
	여자	(136)	97.1	39.0	61.8
연령	만19-29세	(68)	48.5	19.5	30.9
	만30-39세	(68)	48.5	19.5	30.9
	만40-49세	(54)	38.5	15.5	24.5
	만50-59세	(21)	15.0	6.0	9.5
	만60세 이상	(9)	6.4	2.6	4.1
혼인여부	미혼	(120)	85.6	34.4	54.5
	기혼	(110)	78.5	31.5	45.5
자녀	유	(83)	59.2	23.8	83
	무	(17)	12.1	4.9	17

[표22] 정조대왕 능행차 전재현 행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분리했을 경우 개최시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사례수(명)	전통적으로 개최해왔던 가을(9-10월경)에 개최	고종에 충실하게 을묘년 원행이 있었던 봄(3-4월경)에 개최	비율(%)
전체		(220)	50.8	49.2	100.0
성별	남자	(84)	42.7	41.3	38.2
	여자	(136)	69.1	66.9	61.8
연령	만19-29세	(68)	34.5	33.5	30.9
	만30-39세	(68)	34.5	33.5	30.9
	만40-49세	(54)	27.4	26.6	24.5
	만50-59세	(21)	10.7	10.3	9.5
	만60세 이상	(9)	4.6	4.4	4.1
혼인여부	미혼	(120)	61.0	59.1	54.5
	기혼	(110)	55.9	54.1	45.5
자녀	유	(83)	42.2	40.8	83
	무	(17)	8.6	8.4	17

[표23]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을 가을(9~10월경)에 개최하는 것이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전통적으로 가을에 개최해 왔으므로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함으로써 보다 축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므로	봄에는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겹치므로 해서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으므로	봄보다는 야외행사 개최하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므로(봄 미세먼지 등)	비율(%)
전체		(220)	37.5	28.1	6.3	28.1	100.0
성별	남자	(84)	31.5	23.6	5.3	23.6	38.2
	여자	(136)	51.0	38.3	8.5	38.3	61.8
연령	만19-29세	(68)	25.5	19.1	4.3	19.1	30.9
	만30-39세	(68)	25.5	19.1	4.3	19.1	30.9
	만40-49세	(54)	20.3	15.2	3.4	15.2	24.5
	만50-59세	(21)	7.9	5.9	1.3	5.9	9.5
	만60세 이상	(9)	3.4	2.5	0.6	2.5	4.1
혼인여부	미혼	(120)	45.0	33.8	7.5	33.8	54.5
	기혼	(110)	41.3	30.9	6.9	30.9	45.5
자녀	유	(83)	31.1	23.3	5.2	23.3	83
	무	(17)	6.4	4.8	1.1	4.8	17

[표24]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을 봄(3~4월경)에 개최하는 것이 나은 이유

(단위: 명, %)

		사례수(명)	고중에 충실하게 전 구간 재현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시기도 그에 맞춰 개최하는 게 나을 것 같으므로	능행차는 봄, 수원화성문화제는 가을의 양대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으므로	큰 행사나 축제가 한 시기에 몰려있기 보다 분산되어야 집객이나 참여를 높일 수 있으므로	가을보다는 봄이 야외행사 개최하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라서(가을 태풍 등)	비율(%)
전체		(220)	54.8	32.3	9.7	3.2	100.0
성별	남자	(84)	46.1	27.1	8.1	2.7	38.2
	여자	(136)	74.6	43.9	13.2	4.4	61.8
연령	만19-29세	(68)	37.3	21.9	6.6	2.2	30.9
	만30-39세	(68)	37.3	21.9	6.6	2.2	30.9
	만40-49세	(54)	29.6	17.4	5.2	1.7	24.5
	만50-59세	(21)	11.5	6.8	2.0	0.7	9.5
	만60세 이상	(9)	4.9	2.9	0.9	0.3	4.1
혼인여부	미혼	(120)	65.8	38.7	11.6	3.9	54.5
	기혼	(110)	60.3	35.5	10.7	3.6	45.5
자녀	유	(83)	45.5	26.8	8.0	2.7	83
	무	(17)	9.3	5.5	1.7	0.6	17

[표25]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에서 보다 강조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단위: 명, %)

		사례수(명)	고종과 원형에 충실한 능행차 행렬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백성상언, 수원유수 정조맞이와 같은 전통재현 퍼포먼스	능행차 행렬 뒤에 이어지는 화려한 시민퍼레이드	풍물, 북, 다양한 공연 및 플래시몹 행사와 같은 공연볼거리	의상과 분장을 하고 능행차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타	비율(%)
전체		(220)	20.9	32.7	8.6	20.5	16.8	0.5	100.0
성별	남자	(84)	17.6	27.5	7.3	17.2	14.1	0.4	38.2
	여자	(136)	28.4	44.5	11.8	27.8	22.9	0.6	61.8
연령	만19~29세	(68)	14.2	22.3	5.9	13.9	11.4	0.3	30.9
	만30~39세	(68)	14.2	22.3	5.9	13.9	11.4	0.3	30.9
	만40~49세	(54)	11.3	17.7	4.7	11.1	9.1	0.3	24.5
	만50~59세	(21)	4.4	6.9	1.8	4.3	3.5	0.1	9.5
	만60세 이상	(9)	1.9	3.0	0.8	1.8	1.5	0.0	4.1
혼인여부	미혼	(120)	25.1	39.3	10.4	24.6	20.2	0.6	54.5
	기혼	(110)	23.0	36.0	9.5	22.5	18.5	0.5	45.5
자녀	유	(83)	17.4	27.2	7.2	17.0	14.0	0.4	83
	무	(17)	3.6	5.6	1.5	3.5	2.9	0.1	17

[표26]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명)	고종과 원형에 충실한 능행차 행렬	격쟁, 자객대적공방전, 백성상언, 수원유수 정조맞이와 같은 전통재현 퍼포먼스	능행차 행렬 뒤에 이어지는 화려한 시민퍼레이드	풍물, 북, 다양한 공연 및 플래시몹 행사와 같은 공연볼거리	의상과 분장을 하고 능행차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타	비율(%)
전체		(220)	20.9	32.7	8.6	20.5	16.8	0.5	100.0
성별	남자	(84)	17.6	27.5	7.3	17.2	14.1	0.4	38.2
	여자	(136)	28.4	44.5	11.8	27.8	22.9	0.6	61.8
연령	만19~29세	(68)	14.2	22.3	5.9	13.9	11.4	0.3	30.9
	만30~39세	(68)	14.2	22.3	5.9	13.9	11.4	0.3	30.9
	만40~49세	(54)	11.3	17.7	4.7	11.1	9.1	0.3	24.5
	만50~59세	(21)	4.4	6.9	1.8	4.3	3.5	0.1	9.5
	만60세 이상	(9)	1.9	3.0	0.8	1.8	1.5	0.0	4.1
혼인여부	미혼	(120)	25.1	39.3	10.4	24.6	20.2	0.6	54.5
	기혼	(110)	23.0	36.0	9.5	22.5	18.5	0.5	45.5
자녀	유	(83)	17.4	27.2	7.2	17.0	14.0	0.4	83
	무	(17)	3.6	5.6	1.5	3.5	2.9	0.1	17

[표27]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 재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명)	시민들의 협조 (교통통제 및 안전유의 등)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기도 내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등)의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홈페이지의 상시 운영	능행차 행렬의 온라인 중계 채널 다양화	기타	비율(%)
전체		(220)	27.8	30.5	21.0	4.8	15.4	0.5	100.0
성별	남자	(84)	23.4	25.7	17.7	4.0	12.9	0.4	38.2
	여자	(136)	37.9	41.5	28.6	6.5	20.9	0.6	61.8
연령	만19-29세	(68)	18.9	20.8	14.3	3.2	10.5	0.3	30.9
	만30-39세	(68)	18.9	20.8	14.3	3.2	10.5	0.3	30.9
	만40-49세	(54)	15.0	16.5	11.4	2.6	8.3	0.2	24.5
	만50-59세	(21)	5.8	6.4	4.4	1.0	3.2	0.1	9.5
	만60세 이상	(9)	2.5	2.8	1.9	0.4	1.4	0.0	4.1
혼인여부	미혼	(120)	33.4	36.7	25.3	5.7	18.5	0.5	54.5
	기혼	(110)	30.6	33.6	23.1	5.2	16.9	0.5	45.5
자녀	유	(83)	23.1	25.4	17.5	3.9	12.8	0.4	83
	무	(17)	4.7	5.2	3.6	0.8	2.6	0.1	17
순번	기타의견								
1	관람객의 관람 무질서(흡연,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계도 및 단속을 통해 남녀노소 전 연령대의 관람객이 쾌적하게 관람 하게 하는 환경적 인프라								
2	홍보와 마케팅								

[표2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의미

(단위: 명, %)

		사례수(명)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전통문화 관광축제로의 대표성	최대의 역사 퍼레이드 축제로서의 상징성	서울시-경기도와 연계하는 축제로서의 연계와 협력의 가치성	다양한 참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소통 축제로서의 화합성	관광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가치 발굴	기타	비율(%)
전체		(220)	32.5	19.7	13.9	15.8	18.0	0.0	100.0
성별	남자	(84)	27.3	16.6	11.7	13.3	15.1	0.0	38.2
	여자	(136)	44.3	26.9	18.9	21.5	24.5	0.0	61.8
연령	만19-29세	(68)	22.1	13.4	9.4	10.8	12.2	0.0	30.9
	만30-39세	(68)	22.1	13.4	9.4	10.8	12.2	0.0	30.9
	만40-49세	(54)	17.6	10.7	7.5	8.6	9.7	0.0	24.5
	만50-59세	(21)	6.8	4.2	2.9	3.3	3.8	0.0	9.5
	만60세 이상	(9)	2.9	1.8	1.3	1.4	1.6	0.0	4.1
혼인여부	미혼	(120)	39.1	23.7	16.7	19.0	21.6	0.0	54.5
	기혼	(110)	35.8	21.7	15.3	17.4	19.8	0.0	45.5
자녀	유	(83)	27.0	16.4	11.5	13.1	14.9	0.0	83
	무	(17)	5.5	3.4	2.4	2.7	3.1	0.0	17

[표29]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관람 후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중복선택)

(단위: 명, %)

		사례수(명)	능행차의 역사복원성	능행차 출연진 역량	관객과의 공감, 소통	홍보 및 정보 제공	행사장 접근성	관람 환경과 서비스	기타	비율(%)
전체		(220)	19.5	9.5	21.6	18.4	10.4	19.5	1.1	100.0
성별	남자	(84)	16.4	8.0	18.2	15.5	8.7	16.4	0.9	38.2
	여자	(136)	26.5	13.0	29.4	25.0	14.1	26.5	1.5	61.8
연령	만19-29세	(68)	13.3	6.5	14.7	12.5	7.1	13.3	0.7	30.9
	만30-39세	(68)	13.3	6.5	14.7	12.5	7.1	13.3	0.7	30.9
	만40-49세	(54)	10.5	5.1	11.7	9.9	5.6	10.5	0.6	24.5
	만50-59세	(21)	4.1	2.0	4.6	3.9	2.2	4.1	0.2	9.5
	만60세 이상	(9)	1.8	0.9	2.0	1.7	0.9	1.8	0.1	4.1
혼인여부	미혼	(120)	23.4	11.4	26.0	22.1	12.5	23.4	1.3	54.5
	기혼	(110)	21.4	10.5	23.8	20.2	11.4	21.4	1.2	45.5
자녀	유	(83)	16.2	7.9	18.0	15.3	8.6	16.2	0.9	83
	무	(17)	3.3	1.6	3.7	3.1	1.8	3.3	0.2	17

[표30]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관람 후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기타의견)

순번	기타의견
1	관람까지 장시간의 기다림 중 퍼포먼스 필요
2	없음
3	퀄리티 향상
4	효문화의 중요성
5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관람객 무질서. 한 번 관람 후 가족과 계속 관람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밀집한 관람객들 속에서 흡연이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 및 계도가 없어서 향후 관람이 꺼려짐

[표31]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관람 후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의견

순번	기타의견
1	10년전과 너무 틀려졌다 퍼레이드가 형편없어짐. 좀더 알찬구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음.
2	TV로도 볼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것 같다
3	각종 소공연, 먹을거리와 여러사람이 소통할수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것에 대하여 즐거웠다
4	감사합니다
5	개인적으로 만족함
6	고중에 총실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
7	과거 역사로의 여행 같은 느낌
8	과거행차를 직접 경험하듯이 실감이 나서 좋다
9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0	관광지하면 먹을것과 볼거리 인데 구역마다 지역상인 및 푸드트럭 활성화 필요 및 볼거리가 약간 미약함... 딱 보고 우와 할 정도로 멋진 볼거리 필요. 역사적 고증 보다는 현대식과 융합한 볼거리 필요
11	관람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주셨으면 바랍니다~
12	관람객과 사진도 찍어주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13	관람객과 소통하고 함께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14	관람하기 불편하다는 거랑 말뚱냄새 나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말뚱냄새는 문제를 느낀 다음 해부턴 빨리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15	관람하기가 편하지 않았음. 시간 약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데 너무 지쳤었음
16	관람하러 갔을때는 보는눈이 즐거웠으나 도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였다
17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였다
18	교통
19	교통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될 것 같다
20	교통 통제가 구간이 길어서 막히는 구간이 많아짐
21	교통 통제를 더욱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적인 개성을 더욱더 살려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	교통과 접근성이 매우 힘들었다
23	교통상황이 불편했습니다.
24	교통이 너무 불편
25	교통이 불편
26	교통이 혼잡했다

순번	기타의견
27	교통정리가 잘 되었으면 한다
28	교통쪽이 불편한거 같음 신호등 건너갈?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해서 고생한 기억이 있음
29	교통체증 해결
30	교통체증의 불편함
31	교통체증이 심했던게 아쉬웠다
32	교통통제
33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함은 있지만, 수원 시민으로써 참여할수 있고, 연극 같은 볼거리가 많아서 좋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알려질수 있게 온라인 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34	교통통제로 인한 체증
35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36	교통혼잡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37	구경하고 참여자체가 즐거웠으며, 뭔가 거리 행렬 시 복잡하고, 질서가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음.
38	그 옛날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여 행사로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깊고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직접 가서 구경하면서 재현한 그 모습에 감했다고 한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들어 즐거웠다.
39	그간 느끼지못했던 수원에서는 소속감을 시민들과 함께 느껴서 좋았던것같아요
40	그냥 보는 자체로도 좋은 것이 있으나 뭔가 지식으로 쌓일 수 있는 후속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을것같다
41	그냥 역사 관람
42	그때 당시 관람객들의 예절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았어요 :D
43	기타 각종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스가 적거나 대부분 아이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예약제로 야행등 밤에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44	긴 행렬 구경
45	내 고장에서 역사적인 프로그램을 경험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46	너무 걷기만 해서 퍼포먼스도 좀 더 다채로워지면 좋겠습니다
47	능 행차과정에서 좀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바랍니다.
48	능행에 대한 해설이 있었으면 좋겠음(예:노송지대 출발지점, 운동장 지날 때, 행궁입장시 설명 또는 스크린 자막 등으로 설명)
49	능행차 구간이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구간거리 조정이 필요해요
50	능행차 보는게 끝이다 별거 없다

순번	기타의견
51	능행차 본진의 출현까지 장시간의 기다림으로 인하여 중간에 관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다.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지역내의 동아리 또는 공연팀들의 퍼포먼스로 지루함을 해소하고, 관람객의 이탈도 막는 효과가 있을 듯 하다.
52	능행차 재현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무 허술하고 가벼운 느낌이라 역사적 행사보단 아마추어들의 이벤트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앞뒤로 능행차 본래 모습관 관련없는 단체들의 공연(?) 이 끼어있는데 갑자기 장기자랑을 강제로 관람하게 된 느낌이었다. 한마디로 놀이동산 퍼레이드보다도 못한 퀄리티 느낌이라 다음에 또 보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 퀄리티를 높여 국내 타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단순 흥미거리가 아닌 역사적 문화적 프로그램이 되었음 좋겠다.
53	능행차 참여인들의 자세가 조금 아쉬움. 긴 거리를 하다보니 힘들기도 하겠지만 아이랑 보는데 그 힘든표정이 조금 불편했음
54	능행차가 공동재현하면서 행차시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잠시 다른것을 보다 놓치기도 하니 아쉽다 하지만 연결되어서 오는 행차다보니 굳이 행궁쪽으로 안와도 여러사람이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거 같다
55	능행차시 동물배설물이 많아 관람하는데 불편하고 위생상 좋지 않았다
56	능행차에 대취타로 참여 경험이 있음. 앞서 지나가는 말들이 똥을 싸고 지나갔는데 빠르게 치우지 않아 참여자들이 밟고 넘어지기도 하였음. 원활한 행사를 위해 빠른 안전관리가 이뤄졌으면 함
57	능행차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행사참여가 이뤄졌으면 한다.
58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역사고증 현장을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돼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느 것이 눈에 보여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59	다양한 먹거리와 시민들 행사 참여가 많았음 합니다 올해는 어렵겠지만요
60	다양한 행사 추진
61	단순히 퍼레이드를 보는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행사이벤트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2	단점: 차량 통제를 제대로 안해서 능행차가 지나가는 곳으로 차량이 진입하는게 제일 불편했다 사람도 많아서 차가 다시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음 애초에 차가 능행차 진로로 들어올 수 없게끔 차량통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먹거리가 아쉬웠음. 장점: 즐거웠던 점은 초등학생 때부터 추억이 담긴 능행차를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볼 수 있어 참 좋다. 그리고 각종 동아리 활동과 같이 시민의 참여가 더 많아져 보는 재미가 있었다. 건의사항: 앞으로 능행차가 수원외의 대표 행사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면서 능행차를 하면서 관련된 곳들도 함께 판다거나 수원의 특색도 함께 담아주면 더 좋겠다. 능행차를 보면서 먹기 좋은 임금님 빵이라던가 음료같은 것도 같이 팔면 수원의 지역경제에도 더 이바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금님빵 맛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된다...능행차 보다보면 목도 마르고 출출한데 팔면은 잘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수원에도 한복입고 특별출연해도 좋을것같다. 수원을 대표하는 캐릭터인데 홍보가 안돼서 묻히고 캐릭터 예산도 축소되는게 안타깝다. 솔직히 고양이 고양이보다 수원시 수원이 더 귀엽다..수원에서 하는 행사중에 제일 유명하게 정조대왕 능행차이니가 능행차의 인기에 힘입어 귀여운 수원에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순번	기타의견
63	대중교통 통제
64	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
65	더 다양한 프로그램
66	더 많은 시민참여 행사(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67	도로 옆에서 관람하기가 불편했습니다.
68	도심지에서 문화체험을 하는게 새로웠다. 홍보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
69	딱히 없었습니다.
70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 교통통제에 관한 충분한 사전공지가 필요
71	말들 배변 처리 잘해주세요. 지나가고 나면 냄새가 너무 심하고 제대로 치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말들이 산만해보이는 구간도 있고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72	말을 학대하지 말고 잘 관리해주세요
73	매년이 아닌 몇년에 한 번씩 하면서 퀄리티나 규모가 더 컸으면 합니다,
74	먹거리가 좀 맛있으면 좋겠다. 맛이없는 것들만 잔뜩
75	먹거리장터가 좋았음
76	문화행사
77	문화행사로서의 즐거움이 있었으나 관람자는 구간만의 행사관람으로 끝나서 아쉬웠다.
78	밤에 불꽃놀이가 좋았습니다.
79	보기만 해도 재미있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몇백년전을 재연 한다는게
80	보는건 괜찮은 것 같았으나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행사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매년 똑같이 재현해서 같은구간, 같은행렬은 몇 년 뒤에는 너무 번해서 관람이나 참여의 가치가 떨어지는 행사가 될 것 같아 인기나 관심이 시들어질 것 같다.
81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82	볼거리가 다양하다
83	볼거리가 다양했지만, 질서정연한 모습보다는 환경적으로 불안정하고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거리가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84	불편한 건 교통이 조금 불편했고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행사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85	불편한점은 없음
86	불편했다면 관람객이 많아서 붐비는점,,장안문근처에는 가볼 엄두도 못냄,,ㅎ 그래서 노송지대를 택했습니다 19년엔 행궁으로 갔는데 소리만 들었어요—, 정조대왕행렬은 보지도 못하구요— 관람객이 넘 많아서
87	사람들에 밀려 항상 위험도가 있었어요 정렬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래요

순번	기타의견
88	사람들이 모여있는게 좋더
89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찍부터 기다리지 않으면 위치상 관람하기 어려운 구간이 많음
90	사실성과 가까웠으면 함.
91	살던곳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늘 즐겁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 이용 시 주차할 곳이 아쉽습니다 미리 도로 통제 등 공지해주시는 점은 감사히 생각합니다
92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93	생중계로 뒷열에서 볼수 없는 다른 모습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94	서울에 살다 내려와 수원시민이 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전입니다. 취지나 내용자체나 교육적으로도 좋은 행사인만큼 좀더 홍보가 되면 좋을텐데, 늦게서야 알게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	서울에서 오기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어디정도 왔는지 언제쯤 내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는지 예상할 수 없는것이 너무 힘들었음.
96	서울에서부터 진행되어 행사의 중요도가 알수 있으며 참여자의 연령대가 고령이어서 청년층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97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98	소통없이 진행되는 것같아 아쉬웠어요
99	수원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채널이 있었으면 함
100	수원시민으로써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101	수원시에서 오랜시간 꾸준히 이어온 축제인만큼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시민행렬단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축제의 규모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그 규모를 키우는데만 급급하여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 단체에서 퍼레이드를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학교에서는 치어리딩을 잘 하는구나, 노인분들이 모여 이런 악기도 배우시는구나,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오는구나 등등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뿐만아니라 수원시에 대한 관심과 흥미, 추가적으로 정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다면 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수원시민을 비롯한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수원방송을 통해서 매끄럽게 중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2	수원은 지역 특성상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정조대왕 능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서 줄을 서서 보기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수원에서 만큼의 흥행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 행사에 관심이 높다면 지금과 같이 전 구간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원시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행사비용은 물론 길거리 퍼레이드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3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되어 좋다. 조금더 참여 환경이 좋으면 쉽다.

순번	기타의견
104	시민 참여가 어느정도 되는 부분이 좋았고 능행차 관람 시 사람이 많아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105	시민 통제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106	시민들의 관람의식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차선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에 더욱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7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108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9	시민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잠시 앉아서 관람할수 있는 공간 확보
110	시민참여
111	실제 능행차와 같은 모습. 신나는 국악. 화려한 행차 현장
112	아무래도 교통통제시 어린아이와 함께 가서 보기에는 대중교통만으로는 무리가 있는데, 주차나 접근성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113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많았다.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14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사 증가
115	아이를 데리고 가족 관람을 할 수 있는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관람객 사이에서의 흡연과 쓰레기 투기 등을 보면서 다음 번에도 가고 싶지만 실제 꺼려집니다. 제가 관람한 곳은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였습니다., 사람이 뺄뺄하여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밀집성을 보였는데도, 흡연을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관리자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람하는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번 행사부터는 관람 중 길에서의 흡연과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전에는 관람 에티켓 등을 정리하여 행사 홍보 시 미리 안내하고, 행사 중에는 경찰 및 자원봉사자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현장 계도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방 화장실 이외에도, 인근 상가 및 단체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116	아이의 교육 차원에서도 좋고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좀 복잡하고 어수선했음이 있어서 아쉬움
117	어린이들의 교육에 유익, 수원시민의 자부심도 한 몫
118	여러사람이 모여 관람객 외에 행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
119	여전히 대우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듯하다. 관람석이 차라리 없었으면 함. 있다하더라도 약자를 위해 두었으면 함. 누군가 대우를 받기 위해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123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현하여 현재에서도 그 행차를 볼수 있어 좋았다
124	역사적 의미 등의 간단한 현장 브리핑도 함께했으면 함
125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좀더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등 활성화가 필요
126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볼 때 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수원시민인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서울 친구들이 서울의 교통을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은 많이 표했다

순번	기타의견
127	역사적으로볼때훌륭하다
128	역사책에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129	역사학과 출신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음. 그러나 꾸준히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130	연애인의 왕분장이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본의 마츠리와비슷한 세계적인 전통과 문화에 대한 계승행사로 거듭나아가길 바랍니다.
131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외 문화 유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랑스런 행사가 매 년 행하는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며 행사시 거리의 혼잡함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32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게 이채롭고 시민단체의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하는게 좋았으나 관람객이 많을 경우 앞사람에 가려서 못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화성행궁 광장에 층 높이 의자들을 좀 더 많이 비치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드른 촬영한 것등을 잘 편집해서 유튜브등에 올려졌으면 좋겠다
133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 행사라서 뜻깊었음.
134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작년 행사 때는 사람들이 복문 쪽에 우르르 몰려오고 가까이서 보려고 하여 좀 위험 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135	우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136	우연히 행사를 발견했을 때는 정확한 안내가 부족하여 교통 통제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부족하였고 다음 번 행사 관람 시에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던 것 같으나 역시나 정보 제공이 조금 부족했다.
137	유료 좌석제는 제대로 좌석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데 앉지도 못하게해서 불편했음 그냥 보는게 나음
138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행사가 티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서 이 행사의 의미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해설을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에서 능행차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있었으나,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듣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139	작년같은경우 관람에 필요한 방식이나 모자를 협찬받아 진행했는데.. 실제 앉아서 볼기 보다는 서서 보게 되서 크게 효과를 못본거 같습니다.
140	잘모르겠음
141	재미있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142	재밌었다
143	재연하는 배우들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힘들어 보였으며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음
144	전국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5	전시성행사보다는 시민들의 보다많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해 주세요.(의전X)

순번	기타의견
146	전통 의상을 입고 행렬하는 사람들을 보며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것 같아 좋았다.
147	전통 재현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좋았어요.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겠어요.
148	전통의 재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서 역사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구간에서 관광객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붐비고 행사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방문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9	정조대왕능행차를 보면서 그시대를 상상하며 화려한왕능행차가 정조대왕을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봅니다
150	정조대왕이 어머님을 위해서 효심을 나타나는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효자였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되었습니다
151	제일 불편한점 주차문제인것 같다.
152	조선시대 의복
153	좀 더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54	좀 더 시민이 함께 즐길만한 축제같은 분위기로 하되 고증은 충분히 살린 역사적, 전통적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 특히 요즘 행궁동에 젊은 상권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살리어 십대부터 삼십대까지 이 축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155	중착지인 연무대에 자가용 출입을 금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6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57	주변교통과 먹거리의 질 향상
158	주변통제가 부족한 구간이 종종있었다
159	주차등 접근성이 좀더 용이했으면함
160	주차시설 및 안내가 부족하여 통제구역외 주변 교통혼잡 불편함
161	중간중간 퍼포먼스가 있는 것이 재밌었음. 행차 중 말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었음. 동물 전문가가 중간중간 말을 잘 케어해주면 좋을 것 같음
162	즐거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163	즐겁게 잘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64	지금처럼 매년 질 좋은 행사 부탁드립니다
165	지금처럼 잘 유지해 주시길
166	지나가다 얼핏 봐서 잘은 모르겠다
167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체행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168	진짜 역사적으로 했던 행사를 재현 하는거라 보는거 자체로도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순번	기타의견
169	질서가 없어 산만한 느낌을 받았다. 시민드림이 편하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게 진행요원들이 많이 배치되면 좋겠다.
170	처음에는 수원화성문화제 1365 봉사활동으로 일부 행사 기간을 참여했다가, 혼자 관람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될까 걱정돼요. 조금 일정이 미뤄지게 되더라도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 좋겠어요..!
171	체험할 수 있는 부서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172	최근 능행차가 단순해져서 매년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굳이 안봐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중에 의한 행렬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인 만큼 흥미 위주의 퍼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173	축제기간에 하는 수원만의 고유한 행사라고 생각되 잊지않고 보려고 하는 1인입니다 :)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음 좋겠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행동동도 같이 연계하여 우리 시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74	통제구간이 너무 많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75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76	특별히는 없음
177	퍼레이드를 좋아해서 그냥 다 좋았습니다
178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좋지만 화성행궁 앞마당에 밀집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관람하기 힘들어요 올해는 보기 힘들겠군요 ㅠㅠ
179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려 다칠 위험이 있었음. 안전을 위한 인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음.
180	행사 인근지역의 주차시설확보
181	행사 자체의 목적은 좋았으나 교통 통제와 같은 일상 생활에 불편한 일이 발생한다. 행사를 위해 어쩔수없는 일인 것은 알지만 조금 개선해주었으면 좋겠다.
182	행사 참여하시는 참가자분들 너무 고생스러우세요 ㅠ 하지만 재밌게 관람합니달 ㅎㅎ
183	행사의 거리가 너무 광범위하다 도로통제로 다소 불편하다 오히려 행사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 되길 바란다.
184	행사장 접근성
185	행차 경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동경로 확보
186	행차 중간중간 퍼포먼스 구간을 늘려 외국인, 타지역 사람들에게 흥미를 더욱 느끼게 해야한다.
187	행차 행렬 사이에 간격이 길어 텅이 많아서 기다려야 해서 지루한 면이 있고 악기 연주나 춤 등 좀 더 퍼포먼스 양이 많았으면 좋겠음
188	행차를 관람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하기 위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으면 좋겠다.
189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겠어요~

순번	기타의견
190	홍보나 관리가 더 잘되어있음 한다. 재미있긴 한데 정신이 없음
191	홍보와 마케팅을 더 활발히 했으면 합니다.
192	화려한 볼거리와 흥겨워하는 행사참가자들의 모습등이 보기 좋았고,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193	화성행궁의 멋과 전통을 뜻깊게 잘 이어가 주었으면 합니다.
194	화장실 등의 편의성
195	화장실이나 먹거리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저자 약력 |

최지연

사회학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choi.jiyoun@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영상문화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2020, 수원시정연구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수원시 미디어정책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김민성

사회학 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